



사진-김원

하나나도리에



성바로팔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43호

인류를 봉헌하는 기도

인류의 공동 구속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의 성혈로 구원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오류의
어둠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굽어보소서.
추수할 것은 항상 많으나 일꾼이 너무나 적습니다.
마리아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당신께 맡기신 자녀들을
가련히 여기소서.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를 증가시켜 주시고,
열심하고 슬기로운 새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소서.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당신 모성애로 지켜주소서.
예수님과 요한 사도를 돌보시고,
성령강림일에 사도들을 위로하시던 때를 기억하소서.
당신은 첫 사도들과 모든 시대의 사도들의 조연자이십니다.
당신의 힘 있는 기도로 사도직에 부르심을 받은 이에게
새로운 성령강림이 이루어지게 하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성화시키고
거룩한 열의를 일으켜주소서.
당신 은총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실망할 때에는 지탱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열의를 풍부히 갚아주소서.
마리아님, 모든 이가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가톨릭 교회의 온순한 자녀가 되며, 어머니요, 스승이요, 모후로
당신을 우러르고 찬미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메아리치게 하소서.
이로써 저희 모두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에 이르겠나이다.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바로로 가족 기도서

- 인사말_ 2

전화용(아녜스) 수녀
- 말씀살이 “빛”_ 4

죽음의 하느님? 삶의 하느님!	김희(로사리아)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김소연(스텔라)
주님은 찬미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정순이(울릿다)
내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기까지	이순옥(데레사)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김미라(세실리아)
- 통신성서 가족 이야기_ 16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정수옥(마르코)
통서가족, 2016년 이런 일을 했어요	
- 말씀을 더욱 깊게_ 22

정경으로서의 성경 - 나와 너, 우리의 이야기	나호준(요한 보스코) 신부
---------------------------	----------------
- 말씀살이 “사랑”_ 49

주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셨음을...	장진이(도미니카)
사랑의 십자가를 기꺼이 메꿨습니다	박현숙(로사)
선물로 받은 믿음	정상익(빠뜨리시아)
사랑과 희망이 자라는 미션하우스	전미희(데레사)
- 새로운 성경공부 이야기_ 64

새로나는 어르신 성경대학 1학기를 돌아보며	김미진(보리나)
‘오경’을 통해서 만난 하느님	이소영(아가다) 수녀
- 2016년 졸업식 이야기_ 72

나를 변화시킨 통신성서 공부	진장춘(아오스딩)
내 인생과 함께한 성경공부	조영혜(올리아나)
- 교육원 제공, 공부 토틱_ 83
- 책으로 만나는 말씀 이야기_ 88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김보라(사비나)
내 마음에 담긴 말씀	정은(베네딕다)
야곱과 요셉의 영성을 묵상하며	김태식(마르코)
- 평가자 이야기_ 97
- 연수회 이야기_ 110
- 교육원 소식_ 119
- 다 함께 읽어오_ 125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어느 날 복음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 안으로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초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대를 하더라도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공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용(아네스) 수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니 제 존재를 앞세워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삶의 자리는 더더구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지요. 어머니께서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을 때가 좋은 때라시며, 사람이 살다보면 어느 날엔가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가 온다고, 그러니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매일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아주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랑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본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받은 본당 주임신부님의 인상은 그냥 평범한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뵈면서 저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당신께 손을 내미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모두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밤을 새우신 적도 있답니다. 신부님은 사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사람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주님 닮고자 나아가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보며 그날 저는 또 한번 눈이 뜨이는 체험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주님 닮은 삶으로 살고픈 마음을 지니게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품위를 지키며 살지만 속으로는 알력 속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지만 진정 삶으로 말씀을 나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세상의 거짓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도 어느 새 다시 본성에 따라 제 마음자리에 저만의 공간을 두며 안락함을 누리곤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당에서 사목하시던 그 신부님.

보기에는 그저 힘없어 보이고 남들에게 휘둘려 나아가는 듯 보이나 그분은 저에게 살아계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나아가자고 초대해 주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사람을 담았습니다.

마음 깊숙이 주님을 담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세상 어딘가에서는 선함과 아름다움, 나눔과 봉사, 배려와 친절, 사랑과 존경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실천에 함께하고자 그날그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의 결심을 세워 봅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들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꿈틀대지만 이러한 저의 부족과 한계를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봉헌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리며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의 하느님? 삶의 하느님!



김희(로사리아)
우편 3학년

10년 전 제 친정어머님 집이 화마에 폭삭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 친정아버님께서 하느님나라로 먼저 가시고 나서도 어머니는 당신이 사시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늘 힘들어하셨더랬습니다. 혼자 사시기에는 꽤 큰 집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떠나시고 난 후 늘 어머니는 잠자리에 드시기 전 기도가 '주님~ 집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 큰 집을 제가 어찌 관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많은 짐들을 어찌 정리합니까? 제발 좀 도와주소서. 그리고 오늘 잠자리가 마지막이게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게 해주소서'였습니다.

그날도 늘 하시던 대로 어머니는 새벽 2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방으로 가서 3시간 아침기도를 바치고 6시 미사참례를 위해 집을 나서셨지요. 집을 나서고 10분이나 흘렀을까요? 거짓말처럼 어머니의 집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달랑 당신 몸과 입고 계신 옷 한 벌, 미사 가방 하나 매고 계신 게 전부였습니다.

전기장관으로 인한 누전이 원인이었고 주무셨던 방부터 화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기도방에 계신 덕에 몰랐고 집을 나서시고 나서 불길이 번진 덕에 어머니는 무탈하셨나 봅니다. 그 후 다행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분이 불난집은 좋은 운이라고 털썩 바로 사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수월하게 매매가 되었고, 어머니는 혼자 사시기에 딱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

셔서 지금까지 아주 편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불이 나지 않았다면 과연 어머니는 그 집을 손쉽게 팔아치울 수 있으셨을까?
그 많은 옷이며 패물 등등을 과연 당신 손에서 놓아버릴 수 있으셨을까?

‘죽음의 하느님’은 저희 어머니에게서 물질적인 모든 것을 앗아가셨으나 그 대신 너무나도 큰 ‘평온’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가진 것이 하나 없고 나서야 비로소 찾아온 ‘평온’... 집안에 도둑이 들까 염려도 없으시고, 외출 때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신을지, 고민도 없으시고 물질에서 벗어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가난한 이’가 되신 거였습니다. 많은 것을 지니고 사시던 예전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가지신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하느님’은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살림’의 모습임을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번번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일들이 결코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인간이 알아차릴 수 없는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뜻을 살피는 삶,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기대하는 삶을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김소연(스텔라)
우편 5학년

성경공부를 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왜 나는 세례를 받았을까? 처음 세례를 받을 때 느낌은 어떠했는가? 그 후의 삶은?

까맣게 잊고 있던 내 모습들이 떠오른다. 난 사실 친구 따라 세례를 받게 되었다. 우리 집은 어머니께서 일 년에 몇 번 절에 다니시며 등을 달고 예불을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절밥도 얻어먹고, 경치 좋은 절에 고즈넉이 앉아서 산세를 보는 것이 좋았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엔 왜 그런지 당시 성심여고생들이 미사 때 하얀 미사보를 쓰고 조금은 있어 보이는 듯한 여학생들처럼 미사 드린다는 얘기에 잠시 솔깃하기도 했었다. 당시 나의 소녀 감성을 건드린 탓이었을까? 그러나 이도 대학 입시라는 인생의 가장 큰 과제를 해결해야 했던 나에겐 오래가지 않았다. 대학에 무사히 입학했지만 첫해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 휴교령이 내려져 집에 틀어박혀 있게 되었다. 그 당시에 난 그저 푹 푹한 여대생이었다. 1학년 2학기부터 시작된 나의 대학생활은 반정부 세력과 친군부 세력의 다툼 속에서 지나갔다. 4학년 1학기 말에 고등학교 동창이 명동성당에 가서 세례를 받고 했다. 난 조금은 의아해했지만 따라나섰다. 정말 난 좋은 친구였던 것 같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나섰으니...

그렇게 해서 그해 성탄에 나는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나의 세례명은 스텔라. 당시의 교리 담당 수녀님께서 추천해 주신 세례명이다. 1983년 12월의 일이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었을까? 정말로 아무런 반감 없이 친구 따라 명동성당 교리를 신청하고 6개월 동안 교리공부 다니면서 (당시 우리 집은 정릉이었다. 거기서 명동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40분 이상 가서 내린 후 명동길을 다시 10분 걸어야 했다.) 세례를 받았으니... 그러나 지금 나를 이끈 친구는 절에 다니고 있다. 당시의 나는 신앙인으로서 깊은 신심을 지녔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단지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교무금은 내고 싶으면 내는 정도였다. 이렇게 명동성당과 인연을 계속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다른 고교 동창이 명동성당 청년단체로 나를 이끌었다. 그때가 87년 노태우 정권 때로, 많은 학생뿐 아니라 사회인들까지 당시의 군부 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울분에 차있을 때였다. 나는 직장인이자 신앙인으로서 당시의 사회 상황에 대한 공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해방신학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었으나 마음대로 책을 살 수 없던 시절이어서 나는 조심스럽게 서점을 들락거려야 했다. 이때 명동성당의 청년단체 회원 한 명이 투신했다. 이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 난 그 현장에 있었고, 그의 투신을 목격했다. 그가 조성만 열사다.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그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나는 예수를 떠올렸다. 예수님도 자신을 이렇게 바친 것이 아닌가 하는... 하나의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는 나의 신념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나는 그 청년이 하늘에 잠시 머물고 있던 순간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기를 빌었다. 그 이후에 나는 더욱 사회운동에 전념했고 그 덕에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무신론자였다. 농민운동가답게 경제적인 면에서는 항상 내 속을 썩였지만 유머 있고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고,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선배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결혼하고 신혼 초엔 우리 집에서 한 10여 명이 함께 지냈다. 남편의 후배, 성당 후배들 해서 그렇게 북적거리면서 지냈다. 모두들 함께 모여서 밥 짓고 먹고 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항상 사람들과 함께였던 것 같다.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즐거웠으니까.

그 후에 한국에서의 삶은 우리를 이곳 뉴질랜드까지 이끌었다. 원치 않은 송

사에 남편의 일은 실패할 때가 더 많았고, 서로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다. 새로운 해방구가 필요했다. 1995년 우리는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타고 오클랜드에 도착해 따뜻한 2월의 햇살 아래서 포근함을 느끼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 큰 가방 두 개가 우리의 이민 짐이었다. 그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큰 축복은 남편의 세례였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사람이 세례 받기를 기원했지만 실제로 그가 혼자서 성경책을 들고 교리 공부를 다닌다고 했을 때는 좀 멍한 기분이었다.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함께 성당을 다녔지만 어느 면에서는 무늬만 신자였던 것 같다. 하지만 남편은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고, 선교도 하였다. 나는 오히려 신앙생활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냉담도 했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독거노인을 집에 하숙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당시 60이 조금 넘으신 분이었는데 아내와 자식들은 한국에 있다고 했다. 우리와는 처음부터 요셋말로 코드가 맞아서 함께 놀러 다니기도 하고 골프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한 1년 정도 함께 지내시다가 정부 주택으로 들어가셨다. 그분은 그 후 세례를 받으시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갖게 되었다. 그분의 대부인 요셉 형제님과 자매님인 마리아 할머니와도 더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이 부부도 이곳에 있던 딸에게서 버림받고 노부부가 따로 지내셨던 것이다. 이렇게 독거노인들과 우리 남편은 한 가족처럼, 같이 낚시도 하고, 저녁 식사도 자주 하고, 마리아 할머니 댁에서 밥도 얻어먹고 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지낸 세월이 십수 년이 되었다. 그동안 베드로 형제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요셉 할아버지 그리고 지난 1월에 마리아 할머니까지 하느님의 품으로 떠나셨다.

아마도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들은 다른 세상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테고,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직장 생활 하면서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생활을 위한 일에만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남들이 우리 집에서 함께한다고 하면 아마 펼쩍 뛰었을 것이다. 화장실도 비좁고 먹을거리 장만도 바빠질 테니까.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웠겠지... 독거노인 문제는 국가나 사회에 맡기고 살았을 것이다.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 것

이고, 친구들에게 비교당하지 않으려 애를 쓰면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느낀다. 나의 이기적인 면이 깎이어 나갔고, 나는 조금 더 낮은 곳을 보게 되었다. 내 등 뒤에서 누군가의 비아냥거림이 들려도 나의 반응은 예전보다 무디다. 언뜻 보면 나이 들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이 든다고 다 철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회심한 사도 바오로의 삶처럼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길이었다고 믿고 싶다.

주님은 찬미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정순이(울릿다)
우편 6학년

저는 깃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평소 기도생활을 게을리한 저는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신부님이 “기도는 습관이고 해본 사람만이 기도의 참맛을 압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감사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외던 감사기도가 해가 지날수록 습관이 되어 이제는 조금씩 그 맛도 느끼면서, 어떨 땐 기도로써 명쾌한 답을 찾는 체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칫 유혹에 빠질 때도, 게을리할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산에 가서서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시던 대로는 아마 하루하루를 기도로 무장한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는 더 간절한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 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진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저에게 찾아온 병마 덕분에 주님께서 깃세마니에서 하신 기도가 떠올랐고, 그런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두 번의 암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서기 전,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간절한 기도를 절규하며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깨어날 수 없는 경우가 생길까 봐 “주님,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드리신 기도까지 감히 올렸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저는 깨어났습니다.

감사기도가 수도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주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께,

늘 깨어 기도할 줄 알며 제 뜻대로가 아니라

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당신의 사랑 받는

딸이 되도록 모든 것 당신께 의탁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님은 찬미 받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아멘.

내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기까지

이순옥(테레사)
이러닝 6학년

유아세례를 받고 60년간 천주교 신자라는 틀 안에서 생의 대부분을 별생각 없이, 냉담하거나 개종할 생각도 없이 그러저럭 종교생활을 해왔다. 나는 친정어머니의 세례와 함께 천주교 교리에 의해 유아세례를 받고 첫영성체를 하고 혼인성사를 받고, 두 아이를 유아세례 받게 하고, 친정부모님을 천주교식 장례절차로 보내드리고... 이 모든 일이 큰 장애 없이 이어져 왔다. “되돌아보니 이 모든 게 주님의 은총이었네”라는 누군가의 시구詩句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무상의 은총임을 바오로 사도를 배우며 새삼 깨달았다.

그중에 나의 생활에 변화를 준 사건, 예수님 체험(?)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일이 있어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나는 굳이 믿고 있는 사건이었다.

2004년 나는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질환을 앓게 되었고 몇 개월간 투병 끝에 정신과 육체의 고갈상태에 이르렀다. 나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약물과 건강식품을 섭취하고 hospital-shopping에 빠져 결국에는 ‘단월드’ ‘마음수련’ 등 뉴에이지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몸도 풀리는 듯하고 힘도 생기는 듯하여 그들이 유인하는 대로 별별 수련을 따라 하면서 2년여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그들이 말하는 수련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 그들이 붙잡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미련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평화방송을 시청하다가 어느 신부님께서 “천주교 신자들이 온갖 뉴에이지 운동에 빠져있다. 그러나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그것은 세례 때 받은 인호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통곡을 했다.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련한 나를 이런 방식으로 깨우쳐 주시는 하느님!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 후로 그 집단에서 아주 과감히(물 질적 손해도 감수) 나왔고 일단 매일 미사에 참례하며 혼란한 마음을 추슬렀다.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보니 주변에 그제서야 보이는 게 참 많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강의와 영적 도서, 피정, 심지어 미사 중 신부님의 강론이나, 매일미사 책의 복음 설명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매일미사 책 뒷장에 실린 시청각통신성서교육 안내 광고도 눈에 띄고,

결국 매사 소극적이고 게으른 나는,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으로 지금 6학년이다. 얼마나 나 자신이 기특한지 모른다. 그 체험이 있은 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 늘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일을 견디어 내고 있다. 아니 그것을 넘어 참다운 나를 찾고 내 안의 하느님이 주신 거룩한 영을 훼손하지 않으려 오늘도 노력한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나의 의지, 나의 선택,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은총임을 안다. 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나’라는 존재가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 이후로도 잊지 않고 돌봐주시는 귀한 존재라는 깨달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함께하기를” 오늘도 바오로 사도의 축복기도를 되새긴다.

중간고사를 무사히 치른 이 순간, 또한 주님의 은총이다.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김미라(세실리아)
2016년 영성 수료

저는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로 오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지체 장애 친구가 있고 그동안 봉사활동으로 시설을 방문해 활동해 왔기에 장애에 대한 선입견은 적은 편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순수하고 단순함에서 일반인들에게서보다 더 본받을 면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힘든 것은 작업과정을 빨리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과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시간에 쫓기는데 작업속도가 안 나는 것이며 가장 힘든 것은 식품을 다루는 데 위생관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관리 지도하는 부서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 포장과 검수과정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포장하며 유통기한을 날인하고 검수하는 단순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10여 명의 장애우들과 함께 작업하다 보니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힙니다. 불량률 검수하는 근로인을 관리하다 보면 포장작업에서 문제가 생기고, 포장을 관리하다 보면 날인하는 근로인이 유통기한을 잘못 체크하고 있고, 날인 과정을 체크하다 보면 수량을 체크하는 근로인이 실수를 합니다. 하루의 작업과정을 마무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생각 없이 작업을 하니 수시로 체크하며 잔소리를 해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마칠 수 있습니다.

장애우들의 특성을 살펴볼 여유 없이 작업하기에 바빠서 방법이 터득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10여 명이 넘는 장애우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적절한 곳에 작업 배치를 하여 관리를 해야겠다는 지혜가 생겨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서툴지만 제법 작업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 처음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맡겨 진행하니 속도는 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작업이 재미있고 보람됩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직원 간의 교류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대화 중에도 서로 간의 알력이 감추어져 있고 윗 관리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이해관계 때문에 진정한 관계성립이 힘들어 관계 맺기에 지칩니다. 저도 예전에는 모자란 게 많고 어리석어서 올바르게 행동을 못 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봉헌하러 노력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을 뻔히 알지만 이웃과의 화합을 위해 모르는 척 넘어갑니다. 무시하는 눈빛과 말로 나를 대하는 것을 알지만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소신 있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세가 당당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논리가 정연한 사람보다는 가진 게 없어서 자신 없고 오히려 비굴해 보일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과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여 소심하고 자기의 기본권도 돌려받지 못하는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이해하며 배려를 실천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행동하며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주님의 참사랑을 나누기 위해 내가 먼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가 아닌 ‘나부터라도 먼저’라는 마음의 실천이 신앙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아는 만큼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참 예배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알고 듣고 보고 한 것(주님의 사랑)을 나부터 지금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통서가족이에요!

Q. 통서가족은 어떤 모임인가요?

A. 통신성서 재학생과 휴학생 그리고 졸업생을 위한 모임입니다.
(우편 성경공부든 이러닝 성경공부든 상관없이 모두 모두)

Q. 어떻게 가입하나요?

A.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 회원들의 자유로운 글과 교구별 활동 이야기들을 나누며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회원 3,102명 ^^
(카페 '말씀으로 하나 되어' cafe.daum.net/junim510)

Q. 어떤 활동을 합니까?

A. 통서가족을 위한 기도, 교구·지구별 매월 말씀 모임,
통서가족 전체 모임, 소그룹 산행 모임, 신입생 모집 활동,
온라인 카페 모임 등등

Q. 통서가족을 한마디로 말하면?

A. 말씀으로 하나 된 끈끈한 가족! (여러분, 함께해요!)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정수옥(마르코)
동문회 회장

매일 감사를 드리다 보면 한 주, 한 달, 일 년 동안의 모든 일이 커다란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통서가족 동문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계획한 일들이 무사히 잘 진행된 것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제 능력에 넘는 일들이었으나 통서가족 동문회 임원진들과 함께 조금은 새롭고도 다각적인 면모를 갖추어 보려고 애를 썼던 행사들이었고 모두 한마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되어” 정신을 따르려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8일 수원성지에서 있었던 통서가족모임은 참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멀리 마산, 부산, 원주, 대전, 인천, 수원, 서울에서 55명의 동문회 가족이 모였습니다. 성바오로수도회의 강베드로 수사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봉헌하고 점심식사 후에 친교시간을 가진 후 수원성지 1코스를 순례하는 것으로 동문회 행사를 마쳤습니다.

7월 16일에는 마리스타교육관에서 구약입문 1학기 연수회가 있었는데 시청각 통신성서교육원에 입학하고 연수회에 처음 오는 학생들에게 통서가족 동문회와 전국회장단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회장단 모임에서는 각 교구단위의 통서가족 월모임의 현황을 함께 나누었습니

다.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인천은 통서가족 월모임을 바오로딸서원에서 하고 있으며 서원 수녀님의 배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동은 지금까지 모임이 없었으나 안동지역의 회원 명단을 받아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려는 남계현 회장님의 열의가 참 감사했습니다. 춘천은 지역이 광범위하여 연락관계가 수월치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산은 현재 성지를 조성 중인데 피정의 집이 완공되면 전국 통서가족모임을 마산에서 하고 싶다는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되어” 카페는 전국 통서가족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이 카페를 통해 통서가족의 소식과 연락망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자고 서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광주지역에서 전국 회장단 단합대회를 겸한 모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숨은 봉사를 지원하고 협력해 준 김기중 율리오 부회장님, 오광춘 세베로·장미옥 엘리사벳 총무님, 김창호 야고보 카페지기님과 카페운영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항상 배려와 열의를 가지고 통서가족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전화용 아네스 교장수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통서가족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열심히 지원해 주시는 박문희 고로나 담당 수녀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각 교구의 통서가족 월모임을 이끌어오신 회장님들과 임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가족들을 말씀 안에서 격려하는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도 편달해 주시고 올해에 하지 못한 것들은 내년에 진행하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로 청해 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루카 6,31)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인사드립니다.

통서가족, 2016년 이런 일을 했어요~~

올해는 통서가족의 담당인 박 고로나 수녀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되어’ 카페를 방문하여 댓글을 남겨주셨고, 통서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시어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습니다.

1) 교구 통서가족 월례모임



중서울 통서가족 모임: 2016년 4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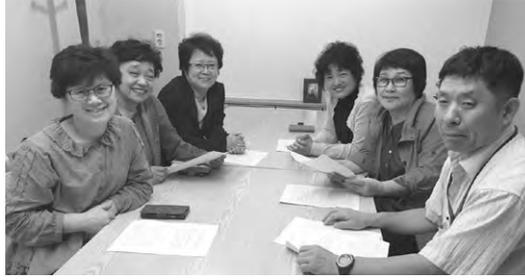


서서울 통서가족 모임: 2016년 5월 22일



동서울 통서가족 모임: 2016년 6월 4일

☺ **짤막한 후기:** 2016년 6월 4일 토요일 오후 역삼동 교리실에서 동서울 통서가족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중서울, 서서울에 이어 세 번째 동서울 모임도 참 기쁘고 감사로운 모임이었습니다. 평소 나오시던 분들이 못 나오셔서 안타까웠지만 출석 여부에 너무 마음 쓰거나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고 단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복음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의 은총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이 좋아서 모이는 형제자매들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대전 통서가족 모임: 2016년 9월 19일

☺ **짙막한 후기:** 2016년 9월 19일 오후 6시 대전 바오로딸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복음(루카9,23-26)으로 묵상 나눔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새기며 순교자들의 피로 지금 우리 신앙의 열매가 맺어졌으니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잘 살피고 안고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10월에는 진산성지성당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2) 2016년 1월 23일(토) 통서가족 임원진과 카페 운영진 모임

통서가족 동문회 정수옥 회장님, 김기중 부회장님, 오광춘 총무님, 장미옥 총무님, 김창호 홍보담당(카페지기)님, 서정대 고문님, 카페 운영진 김순이 캐롤린 님과 함께 1월 23일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전국 통서가족 모임(6월 18일, 토)의 장소선정을 위한 준비, 구약입문 연수회 때(7월 16일 저녁) 전국 통서가족 회장단 모임, ‘말씀으로 하나되어’ 카페 운영규칙, 카페를 활성화하고 통서가족들이 성경말씀에 더욱 맛 들이고 친교를 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한 회의, 11월 성서주간 행사를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3) 제주교구 통서가족들의 선교협력

제주교구 통서가족들과 크리스티나 총무님이 바오로딸수도회 수녀님들의 제주교구 사순매체 보급선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습니다.

4) 전국 통서가족 모임

2016년 6월 18일(토)에 하루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통한 전국 통서가족 동문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산, 부산, 원주, 대전, 인천, 수원, 서울에서 모여온 동문회 가족은 55명이었습니다. 수원 북수동성당에서 성바로수도회 강승현 수사님을 모시고 미사를 봉헌한 뒤, 성지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성경공부 하는 동창들의 만남이라 그런지 서로 안부를 물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친교시간에는 각 교구에 있는 성지를 소개하며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수원성지 1코스를 순례했고, 오후 4시에 성지순례와 동문회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오는 길에 있는 성지에도 들렀었는데 가는 길에 있는 성지도 순례하며 내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고하신 동문회 정수옥 마르코 회장님과 오광춘 세베로·장미옥 엘리사벳 총무님, 카페 홍보담당인 김창호 야고보 님, 그 외 임원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경으로서의 성경 - 나와 너, 우리의 이야기



나호준(요한 보스코) 신부¹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매일 드리는 미사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미사 안에서 적어도 두세 번은 듣고 외치는 선포이자 고백이다.

어린 시절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이 머릿속에 새겨진 문구이고 성인이 된 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 거부감 없이 그저 외우게 되는 전례응답으로서의 문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 따라 읽기에도 어색한 이름들, 이랬다저랬다 헛갈리는 진행, 때론 너무 잔인하고 때론 너무 답답한 상황들의 전개 등 무엇 하나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어 보이는 글들이 어째서 주님의 말씀이 되는가... 그리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쩌면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 바로 말씀과 나의 관계가 아니었나 싶다. 아무리 읽고, 쓰고, 묵상해도 지금의 내 삶과 맞는 통로를 찾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저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1. 2008년 서훈. 파리가톨릭대학교 성경신학 전공. 현재 수원가톨릭대학교 영성지도 신부

‘연구해야’ 하는 기록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리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하나의 ‘본문’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묵상 나누기를 해도 그날의 말씀과는 아무 연관 없는 지금 내 삶의 애환과 갈등을 나누는 경우가 많고, 교회 안에서의 나와 현실에서의 나 사이의 괴리감은 나날이 커져만 간다. 문제가 무엇일까? 예비자 교리 시스템의 문제인가? 각 본당 사목자들의 잘못된 강론이 문제인가? 성경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인가...? 수도 없이 많은 원인과 배경이 자리할 테지만 여기에선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성경 말씀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굳이 성경을 읽지 않고 좋은 글이나 영상, 그림 등을 보고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성경 말씀은 과연 우리들의 삶 안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정경(Canon)으로서의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야말로 규범(κανον), 말씀을 해석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는가? 다시 말해 성경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과연 ‘정경’으로 자리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 암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본 연수는 성경공부라고 하기보다 우리 신앙의 위치를 조금이나마 분명하게 확인하고 서로 나누기 위한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나눌 질문을 다시 한 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 나에게 있어 성경은 과연 ‘정경’인가?

1. 정경으로서의 성경

‘정경’이라 하면 흔히들 서기 4세기 즈음 카르타고에서 확정된 ‘정경목록’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기에 예비자 교리라든가 성경공부를 할 때 정경은 하나의 ‘목록이

나 숫자'로 다가오게 된다. 성경이 연구 대상 또는 암기 대상으로 자리하는 첫 단계가 아닌가 싶다.

이들간의 여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정경이라는 개념은 73권의 목록이 아니라 말 그대로 'canon' 곧 어원 그대로 '신앙의 척도'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정경으로서의 성경은 73권이든 66권이든 그 목록의 나열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요 발판인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인에게 성경은 과연 정경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필요치 않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2. 정경과 주님의 말씀

잠시 서론에서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선포를 통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개념을 갖게 되는가?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아니 더 구체적으로 저자에게 받아 적으라고 불러주신 말씀이라고 철저히 믿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성경을 접하고 더 많은 부분을 알아가면서 던지는 질문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성경을 하느님께서 직접 저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함축적이거나 상징적이 아닌 문자 그대로 들려주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경의 첫 몇 페이지를 읽고 누구나 던지는 질문만 봐도 그렇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어찌서 인간이 따 먹을 줄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 질문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을 하나의 패러다임이 된다. 주님의 말씀을 '소리'가 아닌 '문자로 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경이 신앙의 척도가 아닌 '법, 규율'로 자리하게 되면서 성경은 법전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된다. 그토록 두꺼운 법전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미 없는 문자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과연 지구상에 존재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모두 그들 경전의 권위를 위해 '신의 속삭임'을 고백해 왔다. 절대자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에 인간은 누구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되고 토를 달아서도 안 되며 믿지 않아서도 안 되는 신성한 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주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하느님과 나, 성경과 우리들의 삶... 그 관계 안에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

3. 정경으로 다시 읽는 성경

이들 문제에 대한 고민은 비단 현재 우리들만의 고민은 아니다. 비록 이 질문에 본격적으로 응답하려는 움직임이 불과 1, 2세기 전에 태동되었지만 말이다. 역사비평으로 시작된 성경 연구의 흐름은 20세기 중반 들어 많은 도전과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성경 연구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은 하나의 위기였을지 모르나 전체 연구 역사를 통해 보면 성경연구의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다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97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정경 접근'이다.

3.1. 정경 접근의 이해

정경 접근은 소위 말하는 새로운 방법론은 아니다. 1993년에 발표된 교황청 성경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표한 '교회 안의 성경 해석'²에서 정경 접근은 첫째 장 "해석을 위한 방법론과 접근법"의 셋째 절인 "전승에 근거한 접근법"에서 소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경 접근은 역사비평 방법(méthode historico-critique: 1절)이나

2. Commission biblique pontificale, *L'interprétation de la Bible dans l'Eglise* (Paris, Cerf), 1994.

문헌 분석의 새로운 방법들(nouvelles méthodes d'analyse littéraire: 2절)로도 간주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위원회의 문서는 정경 접근에 대해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 해석의 새로운 방식'으로도 간주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경 접근이 성경 해석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접근법이 과학적인 방법론 안에 수용될 수 있기 위해선 통시적(diachronique), 공시적(synchronique) 방법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경 접근의 탄생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

위원회의 문서는 역사비평 방법으로는 신학적인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경 접근이 시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문헌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 방법론들이 역사비평 방법들보다는 연구 대상 본문의 내적 통일성에 더 큰 주의를 기울이긴 하지만 각각의 문헌을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불충분한 채로 남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상호 관련이 없는 본문들의 집합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거대 전승의 증언들로 이루어진 통일체"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0년대 미국에서 역사비평 방법을 보완하려는 접근법으로서, 신앙의 명시적인 틀인 성경 전체를 출발점으로 삼고 해석의 신학적인 역할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경 접근이 탄생하게 된다. 즉 정경 접근의 역할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과학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정경'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1970년대 미국의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정경 접근이 탄생하게 되었을까?

3. 같은 책, p.43.

4. 위원회의 문서는 '정경'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에 의해 신앙의 규범으로 전수된 그대로의 성경"이라고 정하고 있다. 같은 책, p.44.

3.2. 정경 접근의 출발점

정경 접근의 시작은 미국 예일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였던 Brevard S. Childs의 기고문 “Interpretation in Faith”에서 찾을 수 있다. 1964년에 발표한 이 소논문에서 그는 제대로 된 구약성경 주석서가 없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 연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의 관심사가 성경 본문의 ‘원천’을 찾기 위한 본문비평, 역사비평 그리고 역사 어문학 등에 치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신학적인 결론을 잊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 해석의 신학적 역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명백한 틀’에서 출발해야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Childs가 주장한 ‘정경적 독서’의 시작이 된다.

3.2.1. 정경적 맥락(contexte)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0년대 후반의 급변하는 미국 사회 안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까지 활발하게 진행되던 ‘성경신학 운동’이 자유주의 해석과 근본주의 해석의 영향으로 조금씩 정체성과 위치를 상실하다 급기야 ‘사망’하게 되었다고 Childs는 1970년에 발표한 “Biblical Theology in Crisis”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새로운 성경신학이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시대적 징표를 이해하고자 하는 교회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성경 해석을 위한 가장 적합한 ‘맥락’의 성립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주석학자들에 의해 제안되는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상황 전체’를 의미한다.

과연 어떤 ‘맥락’이 오늘날 성경 해석을 위해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까? Childs는 가장 적합한 맥락으로 그리스도교의 ‘정경’을 제시하며 정경적 독서의 시작을 알린다. 그가 여기서 주장하는 정경적 맥락은 ‘성경 본문의 최종 정경 형태’로서 철저히 공시적인 입장에서의 정경을 말한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

체는 계시의 수단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거룩한 활동 그리고 그에 의해 생성된 규범적인 역사들이야말로 계시의 역사이기에 정경이 되기까지 이어져 온 규범의 역사는 모든 신학과 해석학의 노고가 온전히 펼쳐져 있는 성경의 최종 형태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성경 본문이 서로 다른 사회적 상황, 역사적 사건들 안에서 생성된 다양한 전승에서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배경이나 원래의 상황들은 정경으로 전수되어 오면서 점차 ‘원천’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와 같은 전수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상황들을 위해 본문이 원래 취한 원천에서부터 재창조, 재현실화라는 과정을 거쳤기에 오늘날의 주석은 계시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본문의 최종 형태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 맞갖은 성경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역사비평 연구와 같은 통시적 입장의 연구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Childs가 주장하는 최종 형태의 정경을 통해서 오늘날 성경 해석을 위한 규범이나 법칙을 찾아낼 수 있을까? 최종 형태의 정경이 나오기까지 수도 없이 많았을 특별하고 중대했던 배경들 안에서 성경을 통해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했을 신앙의 역사들 또한 묻히고 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2년 뉴욕 연합신학교 교수인 James A. Sanders는 *Torah & Canon*에서 정경적 독서를 발전시킨 비평, 곧 정경비평을 탄생시키게 된다.

3.3. Sanders에 의한 정경비평⁵

Sanders의 정경비평과 Childs의 정경적 독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정경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할 수 있다. Childs가 “성경 본문의 최종 형태”를 정경이라고

5. Sanders는 정경비평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경 접근을 하나의 방법론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Childs는 Sanders의 이 같은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경적 독서가 하나의 방법론으로 간주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한다.

본 반면 Sanders는 오히려 통시적인 측면에서 정경이 성립되게 된 통시적인 과정(processus)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정경을 ‘거울’에 비유하면서 Sanders는 모든 종류의 신앙 공동체는 그들의 정체성(identité)을 해석학적인 규범에 의거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찾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정경은 모든 시대에 각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경이라는 기반 위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Sanders는 이스라엘과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미 경험된 역사적인 긴장과 시련들(유배,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같은) 간에 역동적인 유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Sanders는 이와 같은 역동적인 유비를 통해 정경의 현실화가 가능해진다고 역설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공동체들이 체험한 여러 가지 위기들과 시련이라는 여정은 정경화 과정 안에서 이미 완료되었고 우리들 또한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마찬가지로의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정경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어려움과 시련, 위기들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Sanders의 입장에서 정경비평은 오늘날 우리들, 우리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3.3.1. 정경화 과정(processus canonique)

Sanders가 주장하는 정경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말하는 ‘과정’이 지니는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관심사의 시작은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오늘날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같은 신앙 공동체이다. 하나의 공동체는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이 ‘과정’을 통해 찾게 된다. 본문(texte)에 의해 구체화된 공동체이지만 이들 공동체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본문에 첨가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성경 본문의 최종 형태와 내용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들 ‘과정’은 정경이 외적으로 하나의 최종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체들의 필요

와 요구, 경험들을 조명하기 위해 성경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내용이요 척도가 되기에 Childs의 공시적 시각과는 달리 Sanders의 정경 접근은 통시적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anders는 ‘정경화’라는 개념을 ‘정경의 형성과정(composition du canon)’과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다. 유다교와 이슬람, 그리스도교라는 세 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경이 다르고, ‘정경의 형성과정’보다 정경의 기능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경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Sanders는 성경의 편집자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지니고 있던 신학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널리 퍼져있던 문학작품들을 어떤 관점과 의도로 편집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하나의 전승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 경우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서 과거의 전승들이 그 후대 유다 공동체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해석학적 규율들은 오늘날의 해석을 위해서도 유효한데 이는 하나의 전승이 발생되고 반복되고 편집되어 또 하나의 전승이 되고 결국 해석학적인 규율, 즉 정경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3.4. 정경 접근의 몇 가지 주안점

앞서 살펴본 대로 두 신학자들의 주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Childs는 ‘정경적 맥락’이고 Sanders는 ‘정경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경 접근은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방법들을 함께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공시적인 입장에서 정경 접근은 서로 다른 장면들과 본문들의 상호 연관성을 살피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연구하려는 본문과 인접하고 있는 본문들과의 관계에서, 문학적 형태, 목적,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찾도록 도와준다.

통시적 입장에서 정경 접근은 신학적이고 사회적이며 규율적인 성찰의 순간들을 반영하는 거울처럼 각각의 본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 하나의 경전이 대를 잇는 신앙공동체를 통해 전수가 되고 하나의 전승이 되었는

지를 찾도록 이끌어 준다.

정경 접근은 또한 정경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정경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 경전으로 지니고 있는 성경 목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각 권이 들어있는 ‘최종 형태’라고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각 권들이 구성하는 정경의 총체가 ‘정경’이라고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정경은 고정되어 있으면서 유연성이 있고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포용하면서도 일관성이 있기에 성경 각 권은 정경 전체의 전망에서만 정경이 될 수 있다.

역사비평 방법과의 관계에서 정경 접근은 신앙의 역사적인 개진 과정 안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역사비평 방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나자렛 예수」⁶에서 역사적인 방법들은 과거에 속하는 사건이나 말씀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말씀들을 현재에 접목시킬 수는 있지만 그 말씀들을 현실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과거 안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경 접근을 통해서라면 일정한 규율에 의해 여러 가지 전승들과 사고들이 농축된 경전을 각기 다른 층의 전승들과 과정들을 그들 자체의 원천에서 떼어내지 않고 이해할 수 있기에 정경 접근을 성경 해석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고 있다.

베네딕토 16세는 각각의 본문들 안에는, 여전히 싹트기를 기다리는 씨앗들과 같이 새로운 상황과 체험, 고통과 시련들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말씀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하느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기록들의 살아있는 주체가 되고 그들에 의해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들 즉 우리 신앙인들에게까지 언제나 현재형이 된다. 그러기에 베네딕토 16세는 정경 접근을, 정경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해석의 규율을 찾아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줄 도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접근 방식을 통해 정경 접근의 분명한 원칙을 말해주는 몇 가지 기본적

6. Joseph RATZINGER/Benoît XVI, *Jésus de Nazareth* (Paris, Flammarion, 2007), p.428

인 특성들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정경 접근은 비록 역사적, 문학적 방법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다분히 신학적이다. 둘째, 정경 접근은 신앙 공동체들과, 전승의 발전에 영향을 준 어떤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다.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 생산된 성경 본문이지만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이미 종교적인 전승들을 숙고함으로써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외치는 개별 저자의 목소리는 공동체가 받아들인 본문의 목소리보다는 덜 중요한 것이다. 셋째, 정경 접근은 성경 본문들에 적합한 해석학은 본문 자체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넷째, 정경 접근은 성경을 이야기들의 모음집으로 보지 않고 신학적 사고들이 새로운 맥락에 대해 반응하면서 끊임없이 재형성되는 살아있는 토론장으로 본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물질만능주의는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가정의 역할은 축소되고 또 축소되어 그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며, 환경문제와 에너지 문제 역시 우리네 삶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터넷과 정보매체의 발달로 하느님의 말씀은 거추장스러운 장신구처럼 되어버렸고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는 과학기술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우리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정경 접근은 이와 같은 우리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간략하게 정경 접근을 통해 창세기 2,4b—3,24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4. 정경 접근을 통한 창세기 2,4b—3,24 다시 읽기

4.1. 왜 창세기 2—3장인가?

창세기 2—3장은 기록한 말씀인 성경을 여는 창세기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뿐 아니라 비그리스도교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창세기 2—3장의 해석은 본질보다는 역사적인 입장에서 본문을 바라봄으로써 기원과 원천이라는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왔다고 할 수 있기에 그 말씀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의 첫머리에 해당된다. Sanders가 “정경에 대해 말하는 것, 그것은 먼저 토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⁷라고 말하듯 토라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고대 전승들의 총체와 이들 전승들을 바탕으로 깨닫고 형성하게 된 그들의 정체성 즉 삶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

4.2. 창세기 2—3장의 정경 접근을 위해 필요한 선이해

정경 접근을 통해 창세기 2—3장의 본문을 읽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과연 어디에서 막을 올리고 어디에서 막을 내려야 하는가?

3장 24절은 뒤이은 4장의 내용과 비교해서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지만 2장 4절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 4절의 내용 전체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그 전체를 우리들이 연구할 본문의 시작점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2,4a에 등장하는 “톨르듯”이란 표현을 1장에서 시작한 천지창조 사화의 끝맺음 부분으로 생각하고 2,4b에선 의도적으로 4a의 표현들을 역순으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4b가 1,1의 메아리 역할을 하고 있기에 2,4a를 1장의 내용과 2—3장의 내용을 잇는 경첩으로 보고 2,4b를 2—3장에서 새로 시작되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2,4b를 시작으로 창세기 2—3장의 구조를 일곱 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7. James A. SANDERS, *Torah & Canon*, Coll. Lectio Divina n°87 (Paris, Cerf), 1975, p.10.

장면 I : 2,4b-17 아담의 창조와 에덴동산에 자리함

장면 II : 2,18-25 동물들과 여자의 창조

장면 III : 3,1-5 뱀과 여자의 대화

장면 IV : 3,6-8 금지된 열매를 따 먹음

장면 V : 3,9-13 주 하느님과 아담, 하와의 대화

장면 VI : 3,14-21 뱀과 여자, 아담을 향한 저주

장면 VII : 3,22-24 아담 커플이 동산에서 쫓겨남

각각의 장면들은 교착어법 등을 이용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 특별히 장면 I과 VII, 장면 II와 VI, 장면 III과 V는 내레이션과 대화, 등장인물, 배경 등에서 서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금지된 열매를 따 먹는 장면인 넷째 장면은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다. 본문의 가운데 장면이 클라이맥스를 이루면서 인간의 불순종과, 법과 하느님의 선물을 공경하지 않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참되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에덴동산에 인간을 둔 것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2,15) 마찬가지로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그 이유가 사람이 난 흙을 경작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즉 창세기 3장의 내용은 2장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역사를 끝맺지 않고 오히려 뒤이을 내용들을 열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시적인 입장만으로는 본문 안에 내재된 긴장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디서 기인하는지를 알아내기 어렵기에 통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창세기 2-3장의 내용과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신학적 반성들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에 깔려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천지창조와 인간의 창조, 특별히 동기와 방법에서 차이점을 살펴보면 창세기 2-3장의 내용 안에서는 우선 주 하느님이 유일하신 하느님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드러난다. 또한 인간이 신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리고 있는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는 달리 창세기의 인간은 자치권을 부

여밭은 피조물로서,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느님과 관계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님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안에서 인간 창조의 완성은 다른 신화들과는 달리 아담의 창조가 아니라 하와 곧 여인의 창조를 통해 완성되고 있기에 더욱 깊은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의 일치, 더 나아가 인류의 일치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과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놀라우리만큼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창세기 2—3장의 저자가 당시 널리 퍼져있던 신화들의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인용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고유의 체험과 신화들을 바탕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여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완성했음을 알게 해 준다.

이어서 창세기 2—3장에서는 저자들이 이미 본문 안에 오늘날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들, 곧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에덴동산이라는 표현을 살펴보면 구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 정원의 이름이 다른 곳에서는 에덴, 하느님의 동산이라고 간주되는 반면 창세기 2—3장 안에서는 에덴의 동산(창세 2,8) 또는 에덴동산(창세 2,15; 3,23,24)이라는 표현으로만 쓰이고 있다. 먼저 창세기 2,8에서만 쓰인 ‘에덴의 동산’이란 표현은 Westermann에 따르면 하느님에 의해 조성되긴 했지만 인간이 살아가게 될 장소로서 하느님의 정원과 구별되는 것이다. 반면 ‘에덴동산’이라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산책을 하시고(창세 3,8) 머무시는 장소로 인간이 쫓겨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 할 수 있다(창세 3,23,24). 창세기의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동산의 장소적인 배경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좀 더 멀리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에덴이라는 장소를 그야말로 낙원 같은 곳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경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해 장소적으로 한정될 수 없는 곳으로 그리고 있다. 에덴은 실재하는 장소로 그려지지만 지리적으로 구체화되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성경 밖에서는 그것의 존재를 증명해 낼 수 없는 장소다.

인간이 창조된 바로 그 땅(창세 2,8)은 에덴동산과 비교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세

상 그 자체 곧 외형적 땅이고, 창조된 인간이 경작해야 했던 땅, 그러나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은 에덴동산으로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내재적 땅이 된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편집자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저자는 어째서 하느님께서 생명나무를 따 먹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금지하셨다고 전하는가? 게다가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은 열매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로서 전후과정을 볼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나무 열매가 아닐까?(창세 2,9; 3,3) 도대체 창세기 2—3장은 하나의 나무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두 개의 나무를 다루고 있는가? 이에 대해 Westermann은 본문의 내용 안에는 하나의 나무만 있지만 그것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무로 분리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생명나무라는 표현은 본문의 시작과 끝(2,9; 3,22-24)에서만 등장하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2장 9절과 17절에서만 등장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나무’ 또는 ‘금지된 나무’라는 표현으로만 등장하고 있다(3,2,3,5,6,11,12,17).

이 나무들에 대한 표현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개의 전승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에 관해 알고 있는 전승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 또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또는 ‘금지된 나무’ 외에는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전승이다. Westermann에 따르면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만 알고 있던 전승이 생명나무에 대해 알고 있던 저자 또는 편집자와 만나 지금과 같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나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에 대한 모티프는 유지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라는 모티프를 들여오기 위해선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을 가진 나무가 필요했고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 열매도 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되며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3장의 배경에는 다

양한 원천과 전승들이 녹아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들 다양한 원천과 전승들은 그저 저자나 편집자가 연관성 없이 죽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설화적인 틀 안에 맞도록 각각의 신화적인 배경 위에 하나의 새로운 유기체로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행과정 안에 작용한 어떠한 법칙 바로 이것이 해석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정경인 것이다.

그렇다면 창세기 2—3장의 여러 가지 전승들이 이런 정경화 과정을 거치게 된 가장 큰 역사적인 순간은 언제일까? 그리고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정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John van Seters는 창세기 2—3장의 저자를 역사가 이면서 동시에 고대자료전문가(antiquarian historian)인 야훼계 학자들로 보고 있다. 그러나 Van Seters가 말하는 야훼계 학자들은 von Rad가 말하는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저술가들도 아니고 Gunkel이 말하는 구전전승들의 모음집을 만들어 낸 이들도 아닌 신명기계 신학의 영향을 받은 후대 유배시대에 활동하던 역사가들로 역사학적 시각 안에서 성경의 원천뿐 아니라 성경 외적인 자료까지도 가져다가 형태를 갖추는 작업을 한 이들을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Van Seters는 창세기 2—3장을 에덴동산이라는 표현, 인간의 범죄와 추방 그리고 지혜와 신성성에 대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에제키엘 28,1—19과 비교하면서 창세기 2—3장의 저자가 에제키엘 28장의 배경으로 사용된 전승을 고유의 신학과 목적을 바탕으로 변형했다고 설명한다. 곧 하느님의 동산인 에덴에 자리하던 임금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전승을 창세기 2—3장의 저자가 임금을 최초의 인류로 변형하고 동시에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에서 흘러들어온 원천들을 접목시켜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Van Seters는 이 과정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야훼계 저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전승이 에제키엘 예언서의 전승 안에 표현된 죄와 인류의 타락의 원인인 지혜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이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곧 하느님의 거룩한 명령이 지어준 ‘한계(limite)’를 파괴함으로써 얻은 것으로 이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은 자

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고찰은 근동의 전승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양의 헬레니즘 문화에서 발견되는 고찰로서 이를 바탕으로 야훼계 저자들은 창세기 2—3장을 뒤이어 발전해 나갈 인류의 역사의 머리말로 구성하였다는 것이 Van Seters의 주장이다. 곧 야훼계 저자들은 인류의 원천과 인류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들의 원인을 찾는 고대 서양의 전승들에 영향을 받은 병인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법과 계약에 순명하는 결과로 장수와 약속된 땅이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신명기계 역사학적인 고찰까지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 안에서 백성들에 의해 단절된 계약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급기야 유배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같은 모습으로 야훼계 안에서는 금지된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야기된 계약의 파기는 연속되는 고통과 저주, 급기야 동산에서의 추방이란 결과를 낳았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명기계 역사의 국가 종교적인 관점은 유배라는 충격적인 상황 하에서 에덴동산에서 아담의 추방이라는 새로운 전승을 탄생시켰고 이를 통해 야훼계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에서의 추방을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할 보편적인 현실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단순히 성경이 그려내는 최초의 인류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너와 나,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 여기는 관점으로 이제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정경 접근을 통해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4.3. 정경 접근을 통해 다시 읽는 창세기 2—3장

4.3.1. 불순종에서 순명으로: 창세기 1—12장과 창세기 2—3장

창세기 1장과 2—3장의 내용은 그저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이 차례로 연결된 사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학적 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의도적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생각해야 한다. 창세기 1장이 먼저 쓰였는지 아니면 창세기 2—3장이 먼저 쓰였는지는 우리의 관심사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답

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정경으로 자리 잡은 지금의 위치가 그 나뭇의 신학과 이유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두 본문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까?

이미 언급한 대로 이 두 본문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2,4a라고 할 수 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두 본문의 공통된 관점은 먼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항상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다.(창세 1,4,10,12,18,25,31; 2,18) 그리고 하느님 자신이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의 기원이사라는 것,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의 응답을 원하시고 이것은 법에 순명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창세 1,29-30; 2,16-17)

창세기 1장과 비교해 보면 창세기 2-3장의 해석을 도와주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2-3장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선물, 은총은 비록 금지와 같은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먼저 무한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인간의 행동 역시 같은 차원에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 2-3장의 내용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1장을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다 받은 인간이 결국 취하게 될 행동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무한한 은총의 선물이 더욱 애절하게 다가온다.

창세기 2-3장을 뒤따르는 창세기 4장과 더불어 정경 접근 방식의 독서를 하게 되면 2-3장의 신학적 배경, 특별히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선명해진다. 구조적으로도 창세기 3장과 4장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창세기 3,1-5의 내용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으로서 금지, 한계에 대한 대화가 나오는데 창세기 4,6-7에서는 주님께서 '죄'에 대해 언급하시며 카인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초대하신다. 이는 곧 카인의 한계와 금지에 대한 주님과 카인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뒤이어 창세기 3,6-7에서는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창세기 4,8에서는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창세기 3,8-13에는 잘못에 대한 주 하느님과 피조물 간의 대화가 나오고, 창세기 4,9-10에는 잘못에 대한 주님과 카인의 대화가 나온다. 창세기 3,17-19에서는 인간을 향한 주 하느님의 판결이 등장하고, 창세기 4장에서도 11-12절에 카인을 향한 주님의 판

결이 등장한다. 그리고 벌의 집행이 3장에서는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4장에서는 카인 스스로 에덴의 동쪽으로 물러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창세기 4장과 2—3장의 연계성은 4장 7절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옳게 행동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카인은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있는 것이다. D. Rudman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범죄가 하느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라 한다면 카인의 범죄 또한 여전히 유효한 하느님의 명령, 즉 하느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 하느님처럼(to be as God) 되고자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⁸ 카인은 동생을 죽이는 ‘악’을 선택하고, 뒤이은 주님의 질문들은 창세기 3장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은 직후에 하느님과 인간이 나눈 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J. Skinner에 따르면 아담과 달리 카인의 대답에는 그의 책임에 대해 반항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담겨있는데 이는 창세기의 저자가 죄의 힘이 무섭도록 발전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린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⁹ 아벨을 찾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카인은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4.9)라고 답변한다. 이 답변을 통해 카인은 이미 하느님의 뜻을 어긴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게다가 보호자(gardien)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언급된 아담의 역할과 사명 즉 하느님의 뜻을 지키는 것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창세 2.15 참조).¹⁰ 결국 카인은 자신의 갈망인 죄, 다시 말해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유혹자인 뱀을 다스리는 것에 실패하게 되고 그의 죄가 깊어지기 무겁다는 것을 인

8. Dominic RUDMAN, “A Little Knowledge is a Dangerous Thing Crossing Forbidden Boundaries in Gen 3-4”, *Studies in the Book of Genesis*, BETL (Leuven: Peeters, 2001), p.464 참조.

9. John SKINNER, *Genesis*,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burgh: T.&T. CLARK, 1930), p.108 참조.

10. 창세기 2,15에서 ‘지키다’라는 분사는 3인칭 단수 여성형이다. 문맥상으로 아담은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 에덴동산에 자리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동산은 남성형 명사이기에 좀 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경작하고 지켜야 할 대상을 여성형 명사인 ‘흙’으로 보기도 하고 유다 전승에 따라 여성형 명사인 ‘명령’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식하여 자신의 원의로 주님의 면전에서 떨어져 간다.

창세기 2—3장을 창세기 4장과 연계해서 읽은 결과 창세기 4장이 창세기 2—3장의 내용, 그중에서도 ‘불순종’이라는 인류의 첫 번째 행동을 더욱 선명하게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시야를 넓혀 창세기 2—3장을 성조들의 역사, 즉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읽게 되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인류의 모습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창세기 1—11장의 내용 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창세기 2—3장은 포괄적으로 지니고 있다. 즉 하느님에 의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주어진 은총, 법, 그리고 법에 대한 불순종이다.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 안에서 인간의 불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죄의 모습으로 순차적으로 묘사된다. 인간의 사악한 생각과 부패된 모습(창세 6,5-8,11-12)은 주 하느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회의를 야기하고 결국 홍수라는 결정에 이르게 한다.(창세 6,6-7,13) 홍수 후에 인간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만드는데(창세 11,4)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결과를 낳는다.(창세 11,6-9) 이처럼 창세기의 첫 11장의 내용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향한 불순종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인, 즉 인간의 절망적 현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은 홍수 이전에도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아담과 홍수 이후의 노아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아담과 노아는 성조라는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창세 2,7; 9,20) 아담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 땅(흙)에서부터 창조되었고(창세 2,7-8,15) 노아는 땅의 사람(창세 9,20)으로 묘사된다. 창세기 2,17과 3,2-6의 에덴동산의 열매는 노아사화에 나오는 열매, 즉 9,20-21에 나오는 포도주와 연계된다. 이 열매를 따 먹음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리고 벌거벗은 몸이 드러나게 되었듯이(창세 3,7)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버려 벗은 몸이 아들 함에게 드러나게 된다.(창세 9,21-22) 눈이 열려 서로의 알몸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알몸을 본 결과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함에게 저주가 내려진다.(창세 3,14-19; 9,25-27)

이와 같은 유사성을 통해 D. Carr는 성경이 전하는 원역사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특별히 조명한다기보다는 하느님과 의 관계에서 인류가 지니는 일반적인 자세를 조명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비 제관계 문헌인 창세기 2-3장은 성조들의 역사라는 문학적 맥락 안에서 뒤이은 사회들과는 독립된 하나의 역사학적인 서론의 역할을 하는 신학적 원인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¹¹

창세기 1-11장의 내용을 지나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된다. 먼저 창세기 12,2에 등장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28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받게 된 원축복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 최초의 축복이 이를 원치 않는 인간의 교만과 거역이라는 행동을 통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창세기 12,4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난다. 창세기 2-3장(4장 참조)에서 순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비록 약속한 축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모습은 창세기 2-3장에 등장하는 인류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표상인 것이다.

4.3.2. 신약성경 안에서 다시 읽는 창세기 2-3장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명을 통해 극복되는 듯하던 인류의 불순종은 열왕기 하권 25장에 이르러 바빌론 유배라는 결과를 낳기까지 지속된다. 인간의 불순종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제 시야를 넓혀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신약의 말씀들 안에서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Sanders가 제시한 해석학을 위한

11. David McLain CARR, *Reading the Fractures of Genesis. Historical and Literary Approaches*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6), p.241 참조.

삼각구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좌측 아래에 신약에서 인용된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놓고 우측 아래에 당시의 정치, 사회적 배경 하에 이미 적용되던 전승을 두고 맨 위 꼭지점에는 해석학적 법칙을 두는 것이다.

위의 구조에 따라 창세기 2,24의 말씀을 좌측 하단 꼭지점에 두고 이 말씀을 인용한 마태오복음 19장과 에페소서 5장이 어떠한 전승과 배경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유가 타당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으냐는 바리사이들의 질문은(마태 19,3) 신명기 24,1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당시의 정치, 사회적 배경에 입각한 바리사이들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창세기 1,27의 말씀과 2,24의 말씀을 인용하신 후 대답하신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마태 19,6)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과 2—3장의 내용이 창세기 2,4a라는 경첩을 통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미 창세기 1장과 2—3장을 연결지어 해석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말씀들을 인용하신 후에 예수님께서선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계신다.(19,5) 이혼이라는 것, 즉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처럼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알몸인 것이 드러나자 부끄러워 나뭇잎을 엮어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하느님의 질문에 자기 아내를 닮은 아담이었듯이, 하느님 앞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 서로를 향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 곧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해석의 법칙, 기준이 되어 창세기 2,24의 말씀을 재해석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분의 해석 안에서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의 전승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뒤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정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분의 해석에 따르면 결혼을 통한 일치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뿌리내리는 것이지만 이혼은 그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구조가 되는 것으로 결국 남자와 여자의 일치, 즉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마태오복음 19장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뜻으로 재해석

된다.

한편 에페소서의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한 유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창세기 2,24의 결혼의 유대를 통해 제시된 남자와 여자의 일치에서 출발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여자와 남편의 몸이라는 유비를 마련한다. 비록 창세기 2,24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신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2,24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신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같은 모양으로 에페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창세기 2,24의 충만한 의미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에페소서 5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창세기 2,24의 말씀이 단지 남자와 여자의 평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고 그분의 몸을 통해 양육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관성은 일치의 관계이자 친교의 관계이며 순명의 관계이다. 따라서 창세기 2—3장에 묘사된 남자와 여자의 일치는 이제 친교의 관계로, 순명의 관계로 확장된다. 즉 아담과 하와의 결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 위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에페소서 5장에서 인용된 창세기 2,24의 말씀은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일치라는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의 깊이에 그리스도론적인 차원의 새로운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로마서 5,12—21에서 재인용되고 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어렵지 않게 아담, 죽음, 은총, 법, 불순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창세기 2—3장에서 쓰인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바오로 사도는 ‘아담과 하와’라는 표현 대신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과 대칭을 이루게 하고 있다. 또한 창세기 2,17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법을 상기시키면서 아담의 위반을 죄로 정의한

다.(5,12,15) 이 법의 위반 즉 아담의 죄에 의해 죽음이 온 인류를 다스리게 되었지만 바오로 사도는 모든 주의를 이 죄에 쏟지 않고 오히려 그의 시선을 장차 오실 아담의 원형에 맞추고 있다.

창세기 1—3장을 읽으면서 은총이 법에 선행한다는 것을 알았듯이 로마서 5,15—19에서 바오로 사도는 잘못의 결과와 은총의 풍성함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구원의 보편성과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뒤이은 본문에서 바오로 사도는 두 아담의 행동에 집중한다. 로마서 5,18—19을 읽으면서 우리는 즉시 창세기 2—3장의 클라이맥스인 금지된 열매를 따 먹는 인간의 불순종의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이 기초 위에 바오로 사도는 직접적으로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새로운 클라이맥스로 우리를 초대한다.

아담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느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라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하느님의 뜻에 순명한 것이다. 게다가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게 된 인류, 즉 생명나무로 다가갈 수 없게 된 인류는 하느님께서 머무시고 다스리시는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러기에 바오로 사도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은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고백한다.(5,21) 창세기 2—3장의 아담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아담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요한복음서에서 절정으로 드러나게 된다.

‘한 처음’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서는 이미 시작부터 창세기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사회에서는 복음사가가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창세기 2—3장의 주요배경인 동산이 요한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의 수난 장소가 된다. 빌라도의 질문(요한 18,35)은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건네신 질문을 반

복하고 있다. 무슨 짓을 했느냐(요한 18,35; 창세 3,13), 어디에서 왔느냐(요한 19,9; 창세 3,9), 소리를 듣는다는 표현(요한 18,37; 창세 3,8,17), 보라 이 사람을(요한 19,5; 창세 3,22), 보아라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창세 3,20).

이처럼 요한복음서의 시각을 통해 창세기 2—3장을 다시 읽게 되면 동산에서 쫓겨나 정지된 에덴동산에서의 인간의 운명이 이제 새 아담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로서 아버지와 이루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그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요한 14,6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빛으로 성령 안에서 본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러나 감추어져 있던 열매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정경 접근을 통해 다시 읽어본 창세기 2—3장의 내용 안에 담긴 신학을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현실화’된 신학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까?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는 에덴동산에서의 추방과 바빌론 유배였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와 지혜를 바탕으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지혜에 근거한 자유를 통해 하느님처럼(to be as God) 되려는 마음은 하느님을 닮은(to be like God) 인간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며 스스로 죄의 권세에 짓눌려 살고픈 의지이다. 이처럼 이미 하느님의 뜻을 알고 있으나 순명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오늘도 아담이 되고 카인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게 된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그것은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신명 30,15—20 참조)

만일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다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는 우리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생명나무 열매만을 바라고 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다시는 먹을 수 없게 된 생명나무 열매가 매일의 미사성제 안에서 십

자나무에 달려있는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4.4. 정경 접근의 기여

“성경 문구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온 교회의 생생한 성전과 신앙의 유추를 염두에 두고 성경 전체의 내용과 통일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제시헌장 3장 12) 결국 정경 접근이라는 것은 공의회가 밝히고 있듯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방법론을 정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그대로 적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경 접근이 지니는 의의를 크게 두 가지로 찾는다면 첫째, 역사비평 방법이 고전했던 신학적인 결론을 정경이라는 맥락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정경을 그저 말씀의 모음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정경을 전수하고 받아온 공동체의 삶과 규율이 담긴 살아있는 해석학의 규범으로 자리하게 했다는 것이다. 정경화 과정을 통해 갈고 닦인 신학의 내용들을 그저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을 위한 하나의 신학으로, 하느님의 말씀, 즉 정경으로 받아들여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정경 접근을 통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정경 접근을 통한 말씀 나누기는 스스로의 삶을 바탕으로 복음을 다시 읽는 것이고 같은 차원에서, 생활나눔은 말씀의 해석을 위한 역사적 순간의 반영이 된다. 따라서 말씀과 삶의 상호교류 안에서 다시 읽는 정경이 우리들 작은 공동체가 필요로 하고 찾고자 하는 신학적 결론, 성경 해석을 위한 규칙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경 접근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아울러 많은 봉사자들이 정경 접근의 연구를 통해 이들 소공동체를 좀 더 신학적인, 다시 말해 신심이 강화된 공동체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나가면서-하느님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두서없이 달려 온 시간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도 더 넘게 매달려 온 부분들임에도 이렇다 할 성과가 이다지도 없음을 보며 다시 한 번 하느님과 교회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된다. 그럼에도 서두에 제기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나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듯한 성경 말씀이 지금 내게 살아있는 ‘목소리’로 들리는 것은 우리 각자가 ‘정경’이라는 맥락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은 역사적 사실이나 증거를 초월하는 ‘진실로서의 역사’에 대한 이해이다. 성경은 과거 이스라엘의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늘 함께하시는 하느님과의 진실한 역사에 대한 고백이기에, 주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늘 현존하는 그 장(場)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서 요한 서간의 저자가 고백하듯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생명의 말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은 하루, 한 달, 일 년, 더 나아가 내 삶 전체라는 하나의 사건에 대한 재해석 곧 정경이라는 맥락 안에서의 재해석을 통해 가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우리는 머리가 아닌, 입이 아닌 온 삶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게 되지 않을까 한다.

덧붙이는 말.

이 자료는 강의를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참고용이기에 구체적인 각주나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중간에 나오는 정경 접근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논문에서 발췌, 요약하였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강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중간중간 다른 내용들이 첨가되기에 이 자료를 통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청해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셨음을...



장진이(도미니카)
우편 2학년

저는 옛날부터 천주교 신자인 외가 덕분에 유아세례를 받고 소위 모태신앙으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첫영성체도 하고 매우 당연하게 미사에 가고 교리반도 나갔지만 머리가 조금 크면서 귀찮음과 재미없음을 핑계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냉담을 했습니다. 그 후 20대 중반에 견진성사를 받을 때까지 저는 하느님을 떠나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을 진심으로 만난 것 자체가 견진성사를 받게 된 20대 중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엄마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제 신앙의 길잡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영향으로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녔고, 엄마가 신심을 잃으실 때쯤 저도 냉담자가 되었으며, 엄마가 다시 신심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하느님께 돌아오게 되었으니까요. 엄마가 제게 직접적으로 권유하시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으로 제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몇 번 미사에 같이 가자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반발심에 거부하게 되었는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또 집에서 늘 틀어놓으시던 복음묵상 테이프를 어쩔 수 없이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세례 때 제 안에 심어진 성령께서 깨어나신 모양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냉담을 하는 동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던 시기입니다. 부모님께서 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으

며 진로 고민 등으로 제일 어둡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하느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난 정말 운이 좋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느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거센 풍랑에 흔들리는 쪽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느낌.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제 곁에서 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압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제게 일어난 일 하나하나가 모두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한 계단이었음을 말입니다.

많은 체험이 있었지만 예전 리포트에 쓴 일 말고 다른 체험을 써보고자 합니다. 냉담하던 시기,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무렵부터 저는 여행을 즐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적은 봉급에서 필요한 금액을 다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다니지는 못했지만 계절별로 한 번씩은 다녔습니다. 여행만이 유일한 해방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행동 말입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게 싫어서 주로 평일에 혼자 다니곤 했는데 가끔은 조금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산을 오를 때면 넓은 등산로가 있음에도, 이따금 마주치는 등산객들이 있음에도 어스름한 산이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의 기도를 중얼거리거나 어렸을 때 부르던 성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어쩜 가사도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는지, 나중에는 ‘또 무슨 성가가 있었지?’ 하며 기억을 더듬어 보기도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느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러던 어느 날 태백으로 여행을 갔을 때인데 그날도 숙소에서 하루 자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피하고자 새벽에 산을 오르려고 첫차를 타러 나갔습니다. 도심이 아니고 계절도 겨울인지라 아주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큰길이었지만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였습니다. 살며시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버스정류장에 도착할 때쯤 되자 무서운 마음은 모두 사라지고 갑자기 벅찬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이 저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쯤 저는 다시 성당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 미사도 가고 시간이 될 때는 평일 미사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제 의지로 받은 게 아니었지만 견진은 제 의지로 받게 된 것이 무척 기뻐합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었지만 항상 든든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가끔 힘이 들 때면 성당으로 가서 평평 울기도 하고 피곤한 날에는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고 삶은 감사한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도 제 신앙생활은 하느님께서 줄곧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맘에 오시는 주〉



내가 사막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광야 속에서 길을 잃어도
 나의 슬픈 영혼이 다시 기쁨을 얻고 내가 평화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을 간직하면서 살지.
 우리 마음속 가득 나의 마음속 가득 주님의 평화 넘치네.
 내 맘에 내 맘에 오시는 주.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고
 무너진 나의 집 나의 마음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시네.



그리고 하느님뿐만 아니라 성모님도 계셨습니다. 어느 해인가 5월 성모성월이 되었을 때 저는 성모님께 꽃을 봉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직업상 5월이 제일 바쁜 시기여서 깜빡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생각이 나서 퇴근길에 꽃집을 들러보았는데 월말이라 수중에 돈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꽃집에 있는 예쁜 꽃들은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하는데 집 근처 트럭에서 화분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어서 그나마 예쁘게 보인 노란색 꽃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성당으로 들고 가는데 살 때는 괜찮은 것 같던 꽃이 보면 볼수록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마음이 울적해졌습니다. 이런 것밖에 못하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졌고 미리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수십 번 집으로 돌아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성당에 도착해서 성모상 앞에 화분을 놓고 나니 성모성월을 맞아 화단에 심어져 있는 알록달록 화려한 꽃들과 비교되어 더 부끄럽고 초라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주 주말에 성당에 가니 누군가가 그 꽃 화분을 성모상 앞 화단에 심어놓았지 뭐니까? 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그 작은 화분에 있던 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자라 꽃을 피워낸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아! 나의 초라하고 부족한 기도라도 성모님을 통한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제게 “너는 언제나 사랑받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외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굳은 믿음이 제 신앙의 근본이며 제가 가장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만으로 빠질까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그 강한 믿음 덕분에 저는 행복하고 위로받으며 언제나 더 나은 자녀가 되고자 노력하고 싶어집니다.

<오 신실하신 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에 행복한 와중에도 교리 지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교리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성경책을 다 읽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레지오나 복사단 활동을 하면서 전례 지식은 조금 생겼지만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었나 봅니다. 이번에도 제 신앙의 길잡이는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먼저 성경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저도 궁금하고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구약성경 입문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이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묵상해 보게 되고, 또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부분들을 읽고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잊어버리곤 하지만 그래도 이 배움이 반복되면서 제 신앙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신앙의 근본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더욱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경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제 곁에 계셨으니 이제는 제가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8)

사랑의 십자가를 기꺼이 메겠습니다



박현숙(로사)
우편 4학년

금년은 제게 시련의 시기입니다. 작년엔 딸 덕분에 기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무수히 하느님께 감사드리곤 했다면, 금년엔 안 풀리는 일들이 많아서 심신이 많이 힘든 상태로 보내는 중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아니, 믿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지요.

도시권 근무 13년의 만기가 차버려서 그보다 낮은 근무지로 전근을 가야 했어요. 제가 선택한 곳은 진도군이었는데 다행히 진도읍에서 가장 큰 규모인 진도초등학교로 배정받았지요. 이제는 기피 학년이 되어버린 1학년 담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직생활 35년 차가 지났지만 1, 2학년은 거의 담임해 본 적이 없고 주로 고학년을 맡곤 했어요. 수업 시수는 많아도 큰 아이들과는 말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의 사춘기가 빨리 오면서 6학년도 교사들에겐 기피 학년입니다. 그래 나잇살이나 먹은 제가 자동으로 1학년을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힘이 들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 다음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내용을 적으라 하셨지만 제가 제 일상의 이야기를 길게 쓰는 건 교직생활 35년이 지났고 이제 정년을 5년 남긴 시점에서야 제가 제 삶의 터전에서 제 사명(소명)을 깨닫게 된 체험을 바로 엮 그제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종종 바치는데 기도 책

을 몇 권 바꿔가며 드리곤 하지요. 근래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묵상하신 내용을 장익 주교님께서 엮으셔서 가톨릭출판사에서 출판한 「십자가의 길」 기도서로 몇 차례 기도를 드렸어요. 엇그제 토요일(7월 16일) 오후, 성당 안이 좀 조용하겠다 싶은 시간대에 성체조배도 드리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려고 본당에 가서 김 추기경님의 「십자가의 길」 기도 책으로 기도하다가 5처에서 김 추기경님의 묵상 내용과 제 삶을 대비해 보며 그야말로 크게 회개하였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메고 온갖 고난을 겪으셨음에도 스스로를 너무나 깊이 자책하고 계셨어요. 모든 성인들이 다 그러하셨듯이...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시몬처럼 당신도 주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계셨지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가?...

그 전날인 15일에 저는 제가 맡고 있던 1학년 아이들 두 명을 찾으러 교실 문을 나서며 제 가슴을 쳤습니다. “주님, 제 삶은 왜 이렇게 구차한가요. 저는 이렇게밖에는 달리 살길이 없는 건가요?” 하면서... 그리고 조금은 원망도 했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은 제게 뭘 그리 잘해주신 게 있으세요?”라고도 했지요.^^ 하느님을 원망스럽게 여겨본 것은 그야말로 오랜만의 일입니다. 늘 감사할 만한 일들을 떠올렸고 실제로 감사하며 살아왔지요.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금년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은근히 원망의 마음까지 들었어요.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은 23명인데 절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발달 장애아가 한 명 있어서 3,4월엔 더 힘들었는데 그 아이 한 명이 휘젓고 다니는 상황도 힘들었지만, 철없이 그 아이를 모방해서 함께 뛰어다니는 남아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지요. 다행히 4월 중순쯤에 그 아이는 장애아 판정을 받아서 특수교육과 병행하게 되니까 제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대인 관계가 엉망인 남아 한 명 때문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이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 버리셨어요. 무지한 아이 아빠는 아이에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한다며 입관 모습까지 다 보게 하였대요. 안 그래도 정서가 엉망인 아이에게 그런 큰 충격적인 일을 겪게 했으니 그 이후 아이

의 행동이 어떠했겠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살 만해지면서 교육 복지도 나아진 게, 부모와 이별이나 사별을 겪은 아이들을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원과 연결하여 일정 기간 치료받게 해줍니다. 제 반 아이도 바로 보건소에 파견 나오는 정신과 선생님과 상담에 들어갔는데 저 또한 제 쪽에서 그 선생님과 상담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지요.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싶었어요.

그 두 아이 말고도 제 속을 찌르는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지요. 저는 심신이 너무 힘들었고 추기경님의 표현대로 '구차한 존재'들 때문에 더 이상 견뎌내고 싶지 않아서 연말엔 기어이 명예퇴직을 해버리리라 몇 번이나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멘 시몬, 우리 대신 십자가를 메신 김 추기경님을 떠올리며 묵상하는 동안, 저는 제 반 그 어린아이들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알코올 중독 아빠와 조선족 엄마 아래서 온갖 못볼 장면을 다 겪고, 편부 슬하에서 자라느라 조금만 부담스런 일이 생기면 배 아프다고 칭얼대고, 그 나이에 엄마와 사별하고, 장애아로 자라고...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그 어린 제자들의 십자가를 조금 거들어 주라는 십자가를 제게도 내려주신 건데, 저는 제 십자가가 무언지도 모른 채 그 상황을 벗어날 궁리로 골몰해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제가 제 잘못을 이제야 알겠나이다. 저를 교사가 되게 하심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저는 지난 35년간 생계를 연명하는 수단으로, 교사라는 직업인으로서만 살아왔습니다. 저를 성가시게 구는 아이들이 싫어서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바로 어제도 제 가슴을 쳤었는데, 이제야 제가 주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깨닫게 되다니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이제부터는 기꺼이 십자가를 메겠습니다. 이토록 미웁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내일 다시 출근하면 또다시 아이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다른 쪽 문도 열어주셨지요. 아이들과 잘 지내기 위해 '교실놀이'를 공부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절 가없이 여기시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 아이들을 대하는 지혜도 깨우쳐 주셨고요. 그분이 절 많이 도와줍니다. 저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의 문제 행동 때문에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스트레스 받는 대상은 그 보호자보다도 담임교사라는 걸 의사 선생님은 이내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로마 8,28) 저는 다시금 증언합니다.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느님을 또다시 체험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중에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소명이라면 제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 수많은 사제·수도자·성소자·환자·고난 중에 있는 이들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 덕분에, 몸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일, 자선을 실천하는 일 등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중이지요. 그런데도 아들은 연말에 제대하면 신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주 뜻을 굳혀버린 듯해서 제 가슴이 더 타들어 갑니다. 아들의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저의 욕심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기도 중에 응답을 들은 것도 같습니다. 그 아이의 삶의 몫은 그가 살아낼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참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내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조차 주님께서 허용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있지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

선물로 받은 믿음



정상익(빠뜨리시아)
이러닝 6학년

샬롬~~

주님께 받은 은총에 맞갖은 생활을 봉헌하지 못하는 삶을 부끄러워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은 믿음입니다.

막내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정말 무덤덤하게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막내를 임신하고 아기를 낙태할 것을 권고받을 때까지만 해도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는지를 의심하는, 아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실존인물인지조차도 의심하는, 무늬만 신자인 저였습니다.

고혈압에 비만인 사람이 세 번째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한다는 것이 20년 전 의료진에게는 엄청난 위험이었는지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선 낙태를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 막내 아이를 너무나도 낳고 싶다는 생각에 예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고, 예수님은 반신반의하며 기도하던 제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으로 청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마침내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막내를 출산하였습니다.

의사의 낙태 권유 때 160/110이던 혈압이 임신 5개월부터는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서도 지극히 정상인 110/70~80을 유지하면서 출산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

적이라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막내의 출산을 계기로 저는 그분에 대해 너무나도 알고 싶어졌고 성경공부와 평일 미사를 비롯하여 전례 참석, 레지오마리아 등등... 백일도 안 된 아기를 등에 업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서 40주간을 하던 어느 날 '깨어 기도하라'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잠자고 있던 제 영혼이 찬물 한 바가지 덮어쓴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맑고 뚜렷한 울림에 제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딸이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우하고 어렵던 어린 시절의 상처로 늘 부정적이고 뒷담화를 즐기던 동네 아줌마에서 어느 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노력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고, 그로부터 어느덧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많이 행복합니다.

성경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매일을 선물로 받은 기쁨과 사랑을 이웃과 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느라 많이 바쁘고 고달플 때도 많지만,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을 살피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매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며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유혹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저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시기를 항상 청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영원한 연인이십니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춤들을 추자.

생명을 주신 주님, 제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저의 부모에게서 태를 열고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편한 삶은 아니었지만 굴곡진 삶 속에서도 당신의 빛을 등불 삼아

견게 해주시고 그 빛의 영광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반백년에 하루를 더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작은 풀꽃의 작은 바람 하나 들어 올립니다.

언제 어느 때 당신께서 부르시면 뒷걸음 맡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함박웃음 날리며 달려가게 하소서.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의 이름에 찬미와 영광이 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죽음이게 하소서.
당신 품에 안길 때 당신을 향한 풀꽃의 노래가 하늘 가득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사랑과 희망이 자라는 미션하우스



전미희(데레사)
우편 6학년

① 해외봉사활동의 꿈

슈바이처의 전기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사랑을 전하러 아프리카 의료선교를 떠난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다. 갑작스런 청각장애로 의욕을 잃고 있던 나에게 장애는 하느님께 향할 수 있게 하는 선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삶을 많은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깨닫고 긍정적인 삶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고 이태석 신부

님이 아프리카에서 보여주신 자기희생을 통한 사랑 실천의 모습을 영화와 책에서 접한 후부터 막연하게 해외봉사활동의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② 준비 없이 떠난 필리핀

지난 1월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필리핀 봉사활동체험을 3개월 일정으로 다녀왔다. 마음만 앞섰고 제대로 준비를 못해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운 점이 많았고 한국이 그리운 순간도 참 많았다. 하지만 더운 날씨와 다른 문화로 고생하시는 수녀님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 체험하러 온 내가 힘들다고 불평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필리핀은 1950년대에서 1970년도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사정이 좋은 나라였으나 마르코스 독재정권의 부패와 과도한 빈부 격차 때문에 경제적으로 몰락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웠고 자녀들을 계획 없이 낳다 보니 한 가정에 보통 5명 이상 출산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여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수업을 하였다.

내가 생활하던 미션하우스에서는 빈민



촌에 사는 아이들을 오전, 오후로 교대로 수용하여 급식을 지급하고 음악, 미술 등 예체능 위주의 교육과 위생과 영양관리, 종교교육,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수많은 질병과, 하루 한 끼 먹을 식량도 부족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밝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아이들 모습과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누린 것들이 얼마나 많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③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해온 봉사는 내 뜻, 내 의지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만족, 내 보람을 위해서 한 것이었다. 필리핀 봉사활동에서 나는 마치 광야에 온 것처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한계와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무력감을 느꼈지만, 하루 3번의 기도시간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느님 뜻을 실천할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자세가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다.

필리핀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가난한 아이들 안에 있는 고통받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치하기 위해 먼저 다가가고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 주며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했더니 몸과 마음이 차츰 불편함보다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어린이와 같은 열린 마음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고 받아주는 서로 간의 사랑을 체험한 기쁜 시간이었다.

④ 가난한 이들과 일치한 소중한 시간 그리고 감사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시기 동안 십자가의 길과 성체현시를 통해 인간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했다. 고 이태석 신부님께서 ‘내 삶이 독립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삶의 일부이기도 하며 이곳 사람들의 삶도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조화로운 섞임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것을 아프리카 수단에서 체험하셨듯이, 부활성야 미사 때 수녀님과 자매들의 손을 맞잡고 주님의 기도를 하는 중 서로 간의 사랑 안에서 일치됨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하나로 묶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느꼈다. 필리핀 봉사활동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깨달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 주신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 알베르트 슈바이처 —

말씀으로 불타는 우리

새로나는 성경공부는,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난 삶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 발견,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 발견, 삶의 에너지 충전,
기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로나는 성경공부는,
재미있는 교재와 성경 필사,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접목하여 성바오로딸수도회와
많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나는 어르신 성경대학 1학기를 돌아보며

김미진(보리나) · 춘천교구 청평성당 봉사자

유난히도 더워서 모두 다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하느님의 섭리인 자연의 절기대로 하늘 높고 바람 선선한 가을이 오니 절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름내 지쳤던 우리네 마음과 심신을 깨우는 충전의 시기가 도래했음에, 파랗고 높은 하늘 올려다보니 넉넉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 성당에선 처음 실시하는 어르신 성경대학 봉사자로 불림을 받았을 때 제게 부여된 봉사자로서의 과제를 어찌 풀어나갈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으나 신부님의 적극적 관심 속에 어여쁜(?) 4명의 봉사자들이 새로나는 성경공부 교육을 받다보니 나름의 자신감도 솟아 마치 갓 입학한 새내기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청평성당 봉사자들은 든든히 결속되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하느님 말씀을 믿으면서요^^^^

그러나 교재를 준비해 실제로 배우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공부하며 숙제도 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느 봉사자들과 달리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타성에 젖어 나만의 신앙을 갖





식사 전 기도를 바치며...



발표를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



청평성당 새로나는 어르신 성경대학 파이팅!

고 만족하며 안위했음을 깨닫고는 갑자기 두려워져 어떻게 어르신들과 함께해야 할지 아득해졌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성경대학 개강일!!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부족함이야 드러나도 그 시간 끝날 때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시길...”

늘 함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학기가 훌쩍 지나간 이 시간 돌이켜 보면 다른 봉사자들에게도 성경대학 나눔 시간은 어렵기도, 기쁘기도, 벅차기도 했겠지만 본당의 어르신 성경 4개 반 중에 유일하게 남성으로 구성된 마태오반은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조금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눔을 하다 보니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느끼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한국의 아버지roman 삶을 살아오시면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성

경 수업이 끝나고 나눔을 하면서 자신을 솔직하고 진실되게 보여주시는 그 자체가 성령이 함께하심이었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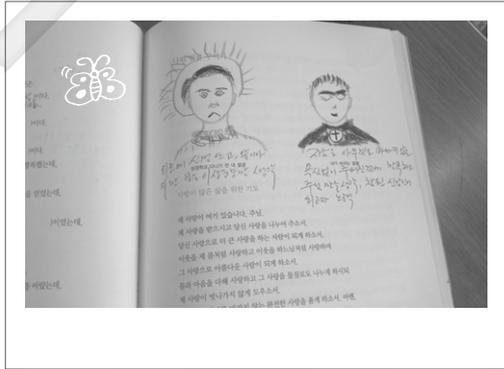
1학기를 마치며 잔잔하지만 큰 기쁨의 파동이 느껴지는 나눔을 해주신 어르신 한 분이 생각납니다. 어르신은 “가장 큰 사람”(마르 9,33-37)을 공부하고 난 뒤 성경대학 다니기 전과 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처음에 “성경대학이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과 궁금함 반, 분당에서 하는 거니까 해야지 하는 심정 반으로 참가했다가 성경을 접하고는 80세가 다 되어 특별하고 감사한 체험을 하게 되었노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대학 다니기 전에는 자신이 마치 하느님인 양 자체 후광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웬만한 단체 활동은 물론 봉사도 많이 하고, 외모에도 관심이 많아 그림에 그랬듯이 머리 위에서 광채가 나는, 제 잘난 멋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 성경대학을 다니며 자신을 성찰하고, 같은 반 학생들의 얘기도 듣고 나누니 엄청난 교만이었다고 솔직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욕심 없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는 진솔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이제는 낮은 자리를 찾아가려 한다는 고백을 씩스러운 듯 말씀하셨을 때 저희 반 모든 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고 큰 박수로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희가 봉사자로 선택되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신앙 안에서의 성찰과 다짐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어르신 성경대학!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만 해오던 일상에서 벗어나 더욱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고자 다짐합니다. 연륜의 힘이 느껴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어르신들의 삶에서 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나는 어르신 성경대학, 파이팅입니다!!



요리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내며 ✌



손에 연필을 꼭 쥐고 집중하여 공부하시는 어르신들 모습^^

‘오경’을 통해서 만난 하느님

이소영(아가다) 수녀·강진성당

요즈음은 제법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들이 조금씩 곱게 물들어 가고 있다. 새싹이 돋고 유록빛의 어린 잎들이 예쁘던 봄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 어느새 무척이나 무덥던 여름도 지나 가을이 선뜻 다가왔다.

인생의 가을을 맞아 파릇파릇한 싱그러움은 없지만 곱게 물들어 가는 우리 강진본당의 어르신들... 강진본당은 대부분 60-70대 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다. 이분들은 생활력도 강해서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도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농사를 지으시고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버스 안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신나게 열정적으로 춤도 잘 추신다.

현대사회에는 여러 모습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많다. 실업청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중고등학생들, 노숙자들, 또 사회의 불의로 여러 형태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 그중에서 어르신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외롭게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 노인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새로나는 어르신 성경공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강진본당에 작년 봄에 와서 여성 어르신들의 모임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본당 신부님께서도 무척 안타까워하셨다. 그러던 중에 교구 주보에서 광주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새로나는 어르신 성경공부 봉사자 교육'을 보았다. 그냥 막연히 성경말씀으로 뭔가 하면서 어

르신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본당 신부님께서 이미 전 본당에서 어르신 성경공부에 대한 좋은 체험을 하셨다고 했다. 바로 4명의 봉사자와 함께 광주로 교육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본당에서 5월 초에 오경 개강식을 하였다.

광주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윤일마 수녀님과 봉사자들은 열정과 열의가 가득했다. 학생용 교재는 어르신들에게 맞게 컬러로 되어있었고, 성경공부와 함께 재미 있는 작업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봉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봉사자용 교재,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수법, 그리고 윤일마 수녀님의 체험 나눔들이 나와 봉사자들의 마음에 불꽃처럼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강진에서 광주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오가면서 봉사자들과 함께 그날 배운 것들, 강진에서 할 계획들, 체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진본당 개강식 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어르신들의 무표정하고 찌푸린 얼굴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입학하는 초등학생들처럼 행복에 차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때 새로운 하느님을 가슴 벅차게 체험할 수 있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매주 금요일이면 1시간이나 일찍 지팡이 짚고 오시는 93세의 루피나 할머니, 작년에 암 진단을 받고 고통을 겪는 중이었는데 성경공부를 함께 하면서 병원에서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루시아 할머니, 어깨에 힘을 주고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하고 있던 남성 어르신들이 어색하지만 울동을 조금씩 따라 하시며 서로 웃으시는 모습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식, 식사 준비 등 기꺼이 몸으로 봉사해 주시는 구역 자매님들, 일찍부터 나오셔서 사진기를 들고 반마다 인증 샷도 찍어주시고 식사 전 상차림 준비도 도와주시는 등 늘~ 함께하시는 신부님... 하느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여름에 수도회에서 하는 한 달 '카리스마' 피정을 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수도 여정을 돌아볼 수 있었다. 하느님의 이끄심과 체험들을 떠올리면서 최근에

한 '새로나는 어르신 성경공부' 체험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른다.

피정을 마치고 본가에 휴가를 가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70대 중반이신 어머니를 뵈었는데 '새로나는 어르신 성경공부'를 본당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명동의 바오로딸 서원에 가서 성경을 색칠로 하는 책을 몇 권 사다드리고 왔다. 어머니에게 “색칠 좋아하세요?” 하고 여쭙더니 아버지 말씀이 “너네 얼마 옛날에 그림 잘 그렸다. 몰랐냐?” 하셔서 부끄러웠다. ‘자신이 젊었을 때 잘하던 것들을 자식을,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사시느라 이렇게 연세가 들 때까지 다 내려놓고 사셨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먹먹했다. 아마 성경그림 색칠을 하시면서 분명 매일매일 더 행복하실 거라 믿는다. 왜냐면 강진 본당 어르신들을 보면서 분명히 확인을 했기에...

‘새로나는 어르신 성경공부’가 더 많은 본당에 전해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정말 꿈꾸는 예수님 삶, 신명나는 삶, 새로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청해본다.

가을은 참~ 아름답다.



강진성당 안호석 신부님과 '새로나는 성경대학' 입학생들과 함께

6년 과정 마침표, 졸업을 축하합니다!



= 졸업 =

- 사전적 의미: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침.
- 통신성서적 의미:
하느님에 대해 알지 못하던 사람이 말씀 공부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게 되어 조금씩 변화되어 간,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적인 과정의 마침이면서 또 한 번의 시작.



<즐겁고 행복하던 졸업식 현장을 전합니다!>

2016년도 제27회 졸업생은 모두 161명! 1,200명이 입학했는데 졸업은 그중 단 161명이니 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이번 졸업연수회에는 영국에서 오신 분을 비롯해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황인수 이냐시오 수사님이 '교부 안에서 본 인간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 삶'이라는 주제로 마음을 울리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느님 닮은 인간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다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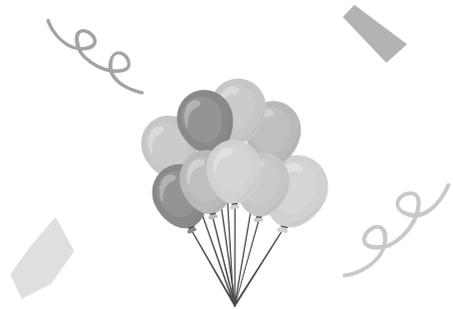
학생들의 눈빛을 받으며
열띤 강의를 하시는 황인수 신부님



한 순간도 강의를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눈빛 ^^



집중, 또 집중!



평화의 인사 때는 신부님을 비롯해 모두가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며 인사를 나누었고 파견 때는 통서가족 동문회 임원들이 깜짝 이벤트로 준비한 과자 한 봉지씩을 받고 졸업생들은 어린아이들처럼 행복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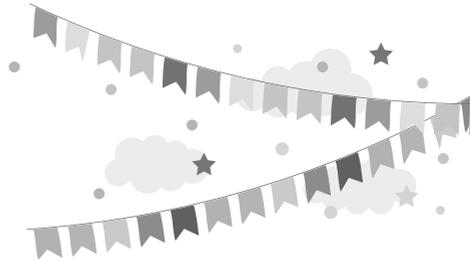


깜짝 이벤트!
과자 한 봉지에 행복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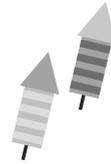


찐한 악수와 함께 나누는
평화 인사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년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졸업장을 받으니 미소가 저절로 ^^~~



와우! 우리 졸업합니다~ 정말 멋지죠?ㅎㅎ
다 함께 김치~ 치즈~

나를 변화시킨 통신성서 공부



진장춘(아오스딩)
성바오로 신학영성 1학년

내가 세례를 받고 입교한 것은 고3 때였고 세례 후 2년 정도는 열심이었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요일에나 겨우 성당에 나가는 형식적인 신자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래도 냉담하지 않은 것은 내 스스로 성당을 찾았고 입교 전후 2년 정도 고민하면서 신앙서적을 읽은 덕분입니다.

65세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일미사나 참례하면서 죄 안 짓고 살면 된다는 의무 의식에 갇힌 신앙은 발전보다 퇴보였습니다. 이기적 우물 속의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어서 수많은 과오와 죄를 지었습니다.

퇴직 후 믿음과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반 1년, 성서 100주간 3년, 신학대학원 1년(중퇴), 통신성서 입문과 중급 6년, 현재 공부하고 있는 성바오로 신학영성 1년을 합해 약 12년 동안 계속 성경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공부 외에 신앙서적도 읽고 피정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신앙체험을 시(1997년 등단)로 써서 블로그와 카페에 600편 정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내 삶의 변화에 대하여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 성경공부 초기의 내 모습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앞에 전개된
무한한 공간의 침묵과 내 의식 속에 내재한
영원한 시간의 아득함이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
그 절벽의 한 가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시고
저에게 만 가지 욕망과 백 가지 생각을 주셨습니다.
만 가지 욕망 다 버리고 백 가지 생각 다 버리고
잡은 가지를 놓으라는 메시지는 당신이 보내신 것입니까?

진정 당신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잡은 손을 놓아도 좋습니다.
가지에 매달려
당신을 바라보려는 저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아는 당신이 당신이십니까?
하지만 하늘 끝에 계신 당신은 꼭꼭 숨어 계십니다.
제 마음 속에 꼭꼭 숨어
보이지 않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저를 불러놓으시고 아무 말도 아니 하십니까?
제 귀가 멀었습니까?
제 눈이 멀었습니까?

당신이 보이지 않고 당신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줄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둘. 참회의 생활

지난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다는 자탄에 빠집니다.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좋은 교사가 못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제자가 못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이웃이 못 되었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저는 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선한 척 부패와 이웃을 비난했습니다. (줄시. 참회의 일부)

전에는 내가 착한 편이며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퇴직 후 제일 먼저 나를 지적한 것이 아내였습니다.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이기적이고 나약하고 죄인인 나를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못된 죄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표양을 못 보인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충고해를 하며 피정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착한 사람으로 변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니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돌보아주신 주님의 손길과 은총을 깊이 느낍니다. 감읍할 뿐입니다. 아직도 실수와 후회

를 반복합니다. 습관과 성향은 변화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참회하고 고치려는 지향으로 삽니다.

셋. 성경을 공부하면 하느님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느님이 보입니다. 성경 저자가 달라 가끔 충돌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느님을 그 속에서 봅니다. 나는 성경공부를 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시아버지와 관계하여 아이를 낳은 여인(타마르)이 있고 창녀(라합)도 있고, 이방인(룻)도 있고, 간통한 여인(밧 세바)도 있습니다.(마태오복음 1장) 이걸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이스라엘이 자기 역사를 미화하고자 했다면 왜 이런 수치스러운 사실을 썼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예수교도를 박해하던 바오로가 어떻게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용감하게 선교하고 목숨을 바쳐 전도를 하고 기적을 행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천 년 전에 감히 생각도 못했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을 가르친 분이 천주 성자 예수 말고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파격적이고 놀라운 길을 제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기적과 죽음을 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기록이 시작되었으며 예수를 배반한 나약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과 성령강림으로 것처럼 굳건해지고 목숨을 바쳐 전도를 할 수 있음은 예수님이 천주 성자이심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진실한 기록입니다. 전체를 읽어 보면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위대한 인간이며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흠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이사 43,4-공동번역성서) 이처럼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 참다운 나를 만

나게 합니다. 이는 큰 깨달음으로 엄청난 새로운 만남이요 발견입니다.

넷. 믿음과 삶의 변화

나의 평소 신앙관은 인간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비신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왔습니다. 그런 내가 조금은 성경공부를 통해 변한 것 같습니다.

내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변화를 말하려니 어쩔 수 없이 씁니다. 요즘 저는 매일 묵주기도 60단, 예수님 수난 15기도(9년), 9일 기도(4년)를 바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매일미사를 가능한 두 번 참례합니다. 가끔 성체조배도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 정기후원도 여러 곳 하게 되었습니다. 성당교무금과 이웃돕기를 합하여 십일조가 되게 씁니다. 매월 1회 고아원 방문이나 무료급식소 봉사를 하다가 최근 몸이 안 좋아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 신자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내 예전 신앙생활에 비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공부를 통해 믿음이 깊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남은 생애는 6년 동안 통신성서에서 공부한 것을 평생 되새기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온 정성과 노력을 바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과 함께한 성경공부



조영혜(올리아나)
27회 졸업생

이제 문제집 마지막 한 페이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큼니다.

성경공부를 시작할 때는 20대 후반의 꽃다운 나이였는데 6년 과정을 마치는 지금은 50대 후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듯, 저 또한 세상에서 30여 년을 보냈네요.)

그동안 세상 속에서 세상인들처럼 살았습니다.

긴 냉담을 갠 후 다시 성당으로 돌아왔지만, 기쁨 속에서도 무언가 허전함을 느껴 조심스레 교육원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공부했기에 제 이름이 남아있어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공부는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하지 못했고, 제출시간도 번번이 넘겼지만, 그래도 차츰 제 마음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성서 공부는 제게 하느님을 알리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갈 곳을 순간 잃어 당황할 때 반짝반짝 빛을 주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알려주는... 삶

에 지치고 힘들 때, 다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성경공부는 희망과 위로를 주었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그 힘은 가끔 유혹에 흔들릴 때 나침반처럼 다시 하느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 세상살이 흔들림이 적어지고, 하느님을 향한 기쁨을, 또한 주님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는 여정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함을,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있는데 그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30여 년 간 큰 버팀목으로 든든히 저를 지켜주고 내 인생과 함께한 성경공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도약을 위한 발 구름!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과 통신성서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교육원에서 성경공부의 팁을 드립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나 신앙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어렵고 복잡한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성경공부를 시작한 입문 학생들은 뭔가 모를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통신성서교육원이 있잖아요~ 교육원에서 공부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편 성경공부

● 이제 막 통신성서를 시작했어요!(입문과정)



문제집을 짝~ 펴본 순간, 느껴지는 느낌이 어떠신가요? 기대? 또는 걱정? 입문과정은 신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도록 문제집 내용도 교재에 충실합니다. 괄호 문제, 선

긋기 문제, 찾아 쓰는 문제 등의 답은 교재에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니 교재를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해 두고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십시오. 입문과정에서 무엇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평가자'입니다. 평가자의 평가와 보충 설명을 통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맨 뒷장 나눔터에 공부하면서 느끼신 것들이나 어려움을 평가자와 자유로이 나누시면 입문과정 공부를 기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한 학기를 총정리하고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 친교도 나눌 수 있는 연수회에 참석하시면 기쁨은 두 배가 되지요. ^^

● 이제 중급과정으로 올라가요!



입문과정을 마치고 나니 이제 신구약의 전반적 흐름을 짚~ 훑게 되었지요. 그런데 중급과정은 입문과정과는 느낌부터가 달라집니다. 주관식이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중급과정은 내용을 깊이며 확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암기나 글자 그대로의 이해가 아니라 훨씬 더 삶과 가까워지고 그 깊이를 이해하게 이끕니다. 그러니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교재와 문제집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답의 기본 내용은 교재에 있습니다. 문제마다 관련 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적어놓았습니다. 반복해서 읽으시면 답이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당 과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밑줄도 짚어~ 그어보시고 개인

노트에 교재 내용을 여러 번 써보시거나 필요하다면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편해지실 것입니다.

● 개인 생각과 체험 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모든 과정 학생들이 호소하는 문제! 그것은 바로 생각과 체험을 쓰는 문제입니다. 난제로세! ^^ 누구나 생각과 체험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답니다. 웬지 모르게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평가자님과 교육원에서도 읽어보니까 조금 더 멋진 표현을 적고 싶은 은근한 유혹도 밀려오지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편히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또는 겪으면서) 성경에 비추어 나의 경험은 이러저러했다고 생각된다, 또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무엇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사실 생각과 체험을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연스레 지난 삶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살펴보는 은총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은총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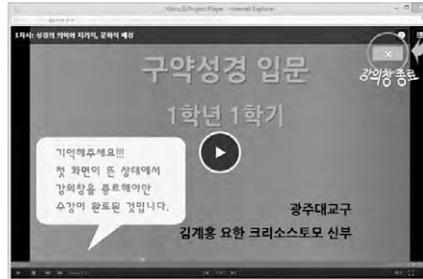
● 교재가 어렵나요?

네, 저희 교재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마치신 졸업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지만 과정을 꾸준히 따라가면서 읽고 또 읽고 답을 찾고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고들 하셨습니다. 앞으로 학생분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교재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이러닝 성경공부란?

이러닝 성경공부는 인터넷으로 하는 성경공부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과 교육원 홈페이지(<http://uus.pauline.or.kr>)에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닝 성경공부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OK! 모바일(핸드폰·아이패드)로도 O.K!



1·2학기 각각 13개의 동영상 강의, 중간·기말고사, 특강 2회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기 내에 동영상 강의는 무한반복 청취하실 수 있고, 강의 자료(pdf 파일)의 인쇄와 저장도 가능합니다. 출석 점수만으로도 이수(60점 이상)가 가능하니, 성실하게 수강하시면 주님 말씀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점수 배점: 출석 65점, 중간고사 15점, 기말고사 20점)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수강하셔야 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러닝 성경공부를 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교육원 홈페이지] > 학습지원 > 자주하는 질문 > '수강장애'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교육원의 'PC 원격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한 통으로 고민 끝!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은 우편 성경공부, 이러닝 성경공부 그리고 새로나는 성경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께 열려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잘 모르겠거나 ‘이런 걸 문의해도 될까’ 하는 궁금증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연락하세요. 과제가 밀렸거나 휴학이나 재등록을 하고 싶다거나 하는 등의 행정 관련 문제도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 통화가 어려우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도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습의 Tip을 들으니 안심되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듯 통신성서공부는 교육원과 개별동반자가 동행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서 빛을 얻고 하느님 안에서 더 깊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홈페이지 <http://uus.pauline.or.kr>

- 우편 성경공부 02) 944-0819~0824 uus@pauline.or.kr
- 이러닝 성경공부 02) 944-0840~0843 e-learning@pauline.or.kr
- 새로나는 성경공부 02) 944-0968~0969 seronab@pauline.or.kr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 신앙의 인간 요셉*을 읽고



김보라(사비나)
우편 1학년



빅터 M. 파라친은 말한다.

“우리에게 상처와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 고통이 비록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의 빛깔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상처와 고통을 믿음으로 대면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빛깔로 배합하고 또 그렇게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요셉은 어떤 처지에서도 하느님에게서 눈을 돌린 적이 없다. 13년이라는 역경의 세월뿐만 아니라 이집트 재상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간 사람이었다. 요셉 이야기는 하느님께 의탁하기보다는 매사 내 자신의 생각과 힘을 우선으로 하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느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느님이 당신 선의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

* 송봉모, 『신앙의 인간 요셉』, 바오로딸.

음을 버리지 않은 요셉의 태도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나도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책을 읽는 중 계속되었고 한편으로는 나도 매일매일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고 싶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의미를 하느님 아버지께 두고 살아가는 삶,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열일곱의 어린 나이부터 무려 13년 동안 시련의 세월을 보낸다. 장래가 촉망되고 꿈에 부풀 20대에 요셉이 겪는 시련은 30대 중반 나에게 찾아온 위기와 맞물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나의 20대에 그러한 시련이 찾아왔다면, 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하느님을 원망하였을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철부지로 살며 나의 시간과 힘을 통제하시는 그분께 끊임없이 따져 물으며 배반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30대 중반 처음으로 찾아온 위기에 나는 놀랍게도 잘 순응했다. 강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며 일에 빠져 살던 중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다. 진단을 받기 1년여 전부터 몸이 아파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지만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그때를 돌아보니, 나는 욕망에 눈이 멀고 마음도 멀어있었다. 오로지 나만을 바라보며 나쁜 감옥 속에서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이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순간, 나는 묘한 체험을 하였다. 이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내가 기다려 온 날처럼 여겨져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후 수술과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슬픔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느님이 함께하시고 돌보아 주고 계신다는 하느님의 섭리(작용)를 느꼈기 때문이다. 나에게 닥쳐온 그 시간을 시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몰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

책 속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하느님을 떠나있을 때 인간은 병이 든다. 호세아 예언자는 이렇게 선언한다. ‘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하였다가 병들었다.’(호세 14.5) 병든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몸의 병

을 겪고 나서야 내가 걸린 진짜 병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가장 훌륭한 치료법 또한 찾을 수 있었다.

여전히 치료를 위해서는 긴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 나는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한다. 내 존재가 하느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성조 요셉을 무척 닮고 싶다. 나약한 인간인 나는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요셉은 슬한 시련에도 하느님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맡겼다.

하느님 중심의 삶을 산 요셉을 본받기 위해 내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세 가지 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우선, 한결같은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은총과 사랑을 입고 살아왔는지 깨닫고 삶의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 매일 〈1. 아침·저녁 기도, 2. 복음 읽기, 3. 묵상, 4. 묵주기도, 5. 성경 필사〉를 한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영적 인간이 되어가고자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극복해 가면서 영적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나를 낮추고 겸손함을 갖는 것이다. 나의 가장 나쁜 태도가 지적 교만임을 찾아냈고, 노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도 적어보았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칭찬을 즐기지 말고, 대단한 일이나 하는 줄 여기는 마음을 지니지 말 것이며, 사람들과 불필요한 말들을 함으로써 도리어 나의 결점인 교만함을 드러내는 경우를 줄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솔선수범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카리스마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고, 내 내면에 ‘밝음과 웃음’이 있음을 떠올렸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게 무한히 채워주시는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이 두 가지를 복음의 도구로 선택하였다. 내 자신을 먼저 평화 가운데 편하게 다스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도 평화 속에서 살게 하고자 애쓰려 한다.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마음은 언제까지나 메마르고 완고했을 것이다. 처음처럼 좋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그것들이 쌓여 조금씩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길을 씩씩하게 밟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외친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담긴 말씀

– 아주 특별한 순간*을 읽고



정은(베네딕다)
우편 2학년

「아주 특별한 순간」은 어떤 책일까 궁금해하면서 시간 있을 때 조금씩 읽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과 흐름이 너무나 좋아서 결국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잔잔하면서 상냥하고, 그러면서 곳곳에서 웃을거리도 만들어 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통신성서를 하면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너희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아프리카 격언: 본문 24쪽)

* V. 안토니오 사지 VC, 「아주 특별한 순간」, 바오로딸.

저자인 안토니오 신부님은 책에서 이 격언을 두어 번 소개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또한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십 년 좀 넘게 있는데, 그간 저는 나름 ‘진심으로’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곳에 있을수록 내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생각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격언을 통해 ‘내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하느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계속 이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그리스도교 신앙은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고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오코너 신부: 본문 106쪽)

이 말은 참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신앙을 생각할 때 경험과 믿음이라는 두 구분된 것들을 그냥 섞어서 막 생각해 버린 경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에 대한 안토니오 신부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둘이 정말 다른 것이고, 제가 큰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험 속에서 신앙을 확신하고, 또 제대로 된 신앙이 있으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식으로 신앙과 경험을 묶어서 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을 읽으면서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경험인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안토니오 신부님은 적고 계신데,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뻗쳐가 버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언제 어떨 때 내 신앙이 자리 잡았고 또 조금씩 성장해 나갔는지 더듬어 보면 그것은 체험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라는 어떤 순간들요. - 이런 순간들이 책 제목대로 ‘아주 특별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글

로 표현해 내는 것이 좀 힘들지만, 아무튼 저는 이 말씀, 신앙이 믿음에 기초한다는 이 익숙한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또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시편 51,12) (본문 181쪽)

정말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읽고 또 읽어봅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그럼 어떻게 이런 상태를 만들고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앞서 안토니오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을 재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입니다. 특별히 성체성사입니다.”(본문 33쪽)

안토니오 신부님은 이 글 전체를 통해 성체성사를 아주 강조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이 글을 읽으며 평일 미사에 더 부지런히 참석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제 생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더 자주 성체를 모시게 되면서 아주 기쁜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순박함, 단순함, 그리고 겸손입니다.”(본문 180쪽)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온전히 ‘내밀한 공간’에 머물며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영성을 묵상하며

-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나이 들의 영성*을 읽고



김태식(마르코)
우편 3학년



이 책은 신약·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을 통해 나이 들의 영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요셉, 모세를 ‘떠남의 신비’로 구분하였고, 제2장에서는 여호수아, 엘리야, 욥, 토빗, 유딧을 ‘고독의 풍요’로, 제3장에서는 마리아, 요셉, 엘리사벳, 즈카르야, 시메온을 ‘기다림 너머에는’으로, 제4장에서는 세례자 요한, 마태오, 베드로, 마리아 막달레나, 바오로를 ‘아, 비로소 자유로운’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이나 설명이 대체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였다.

야곱은 축복의 영성, 요셉은 화해의 영성이라는 부제로 제시되었다. “나이가 들면 좀 더 행복해집니다. 젊음은 곧 투쟁이니까요. 나이가 들면 이미 뭐라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이지요. 그런 경험이 참 좋은 것 같더군요. 삶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고, 삶을 더 즐기게 되는 거죠”(엘리스 조머)라는 인용문도 공감이 간다.

* 서명옥,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나이 들의 영성』, 바오로딸.

야곱의 이야기는 자기 이익과 욕망의 실현을 위해 거칠게 살아온 사람의 노년을 말한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야곱은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야벳 개울가의 씨름 이야기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안셀름 그뤼의 해설을 읽어보니, 그가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동이 틀 때까지 돌아보며 스스로 사기꾼이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하느님의 징벌로 엉덩이뼈를 다쳤다는 것은 무모하게 살던 젊은 날에 얻은 상처나 노인의 깊은 얼굴 주름과도 같이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 때문에 남들에게 시기를 받아 큰 손해를 입게 된 사람의 노년을 말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형들을 너무 쉽사리 용서하는 요셉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재능이 출중한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오는 과정에서 사소한 언행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죄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훗날 그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어려운 용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나이 들의 영성으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하나만으로도 이 책이 매우 고맙게 느껴진다. 야곱이나 요셉이 노년에 나이 들어서 한 행동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역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린 시절의 가족이나 그들에게 행한 행동과 같은 것은 잊기 마련이다. 그런데 야곱이나 요셉은 젊은 시절을 다 지내고 나서 어린 시절의 가족들과 다시 만났을 때 처절한 반성을 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용서를 해주었다. 그 계기에 대해서 야곱은 하느님과 씨름을 했다고 하고, 요셉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젊은 날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뒤돌아보면 야곱보다는 요셉 쪽에 가까웠다. 가끔 의외의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모함을 받아 고난을 겪기도 하였으나, 나름대로 잘 극복해 왔다. 어찌 보면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다. 내 실체에 비해

운이 좋았다는 것은 그동안 하느님이 내 가까이 계셨다는 뜻이다. 실은 내 성적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적이 더 많다. 그러나 무심코 한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주위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건이 좋지 않은 주위 사람들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요즘에 와서 느끼기에 그 부끄러움에 온몸이 오싹할 지경일 때도 있다.

사람이 사는 데 나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면서 사람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날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화해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 후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다. 어떤 것에도 매여있지 않은 사람들만이 자기 마음속의 선(善)을 따라 살 수 있다고 하니, 이는 곧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야뵙 개울가에 선 야곱처럼 밤새도록 끈질기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다. 어쩌면 야곱처럼 ‘나는 멍청이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의 삶에서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일들도 적지 않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싶다. 내가 예전에 그 사람들에게 왜 핍박을 받았는지, 내가 그때 왜 누명을 쓰게 되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비록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문제가 있었고 죄를 지었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사실을 사실 그대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요셉처럼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이었다고 여기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들의 숨은 공로자

○ 졸업생 평가자 모임

이번 졸업생 평가자 모임은 3월 12일 토요일 박병규 신부님의 특강 「성경 읽는 재미」에 참석하여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특강 1시간 전에 평가자 모임을 통해 교육원의 정보를 나누고 평가자들의 체험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신 평가자님들을 위해 특강 교재 「성경 읽는 재미」를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 신학교 평가자 모임

올해는 3월 광주신학교를 시작으로 인천신학교, 서울신학교, 대구신학교, 부산신학교로 평가자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사님들께 평가에 대한 안내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학사님들이 평가를 하시면서 교육원에 전하고 싶은 의견들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제님들께서는 교재의 내용이 어려워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을 쓰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면서 이를 연수회를 통해 꼭 해소시켜 주기를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직책과 수업으로 여유가 없는 시간 안에서도 충실한 보충과 성실하게 동반해 주시는 학사님들과 부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 각자의 개성대로 포즈를 취하며 한 컷! ^^



인천 예쁜 꽃을 배경으로 찰칵~



서울 두 손을 모으고 성모님과 함께~



대구 살짝 보이는 아름다운 미소들~ ^^



부산 모임 인증샷을 위해 함께 모여서~

새 사제 미사(1월: 인천, 마산, 제주, 대구교구 / 2월: 광주, 안동교구)

교육원 평가 봉사를 하시는 새 신부님들. 방문할 곳이 많은데도 수도원에 오셔서 미사 집전을 해주신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미사 후에는 신부님들께 사도직 장소인 알베리오네 센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수도원책방과 바오로딸 콘텐츠를 소개해 드릴 때 귀를 쫑긋 세우며 들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언제나처럼 통신성서교육원에 대한 사랑과 함께 온갖 정성을 담아 직원들에게 안수도 해주셨습니다. 새 신부님들의 강복 덕분에 직원들의 힘이 불끈 솟아올랐겠지요? ^^



전주교구 새 사제



광주대교구 새 사제



대구대학교구 새 사제



2016년 1월 24일 사제서품을 받고 2월 초순에 성바로로탈수도회를 방문하신
안동교구 새 사제 이승준 도미니코 평가자 신부님께서 미사강론을 통해
나누어 주신 감사인사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서품을 받은 안동교구 새 사제들입니다.

통신성서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학교에서 통신성서 평가자로 봉사를 한 것이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네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한데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신성서 하면,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하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떠오릅니다. 저는 통신성서 평가자를 대학원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평가자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부터 부제반까지 계속 했으니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한 셈입니다. 가끔씩 몇몇 동기들이 묻습니다. 통신성서 채점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채점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틀린 답이 있으면 일일이 정답을 적어줘야 되고, 마지막엔 평가자가 학생에게 보내는 글

도 적어야 하는데... 그게 또 아무렇게나 적으면 수녀님들한테 경고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적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냐고 가끔씩 물어보는데, 물론 힘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씨익 미소를 띠면서 대답합니다. 바오로딸 상품권을 꺼내들면서... 힘들어도 이거 보면서 참는다고. 그렇게 장난삼아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통신성서 문제집은 꼭 신학교에서 바쁠 때만 옵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몇 주 앞둔 상황에서 온다든지, 행사 준비로 한창 바쁠 때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꼭 바쁠 때만 문제집이 와요. 다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느껴서 그러는 건가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정말 바쁠 때 문제집이 옵니다. 통신성서 담당하는 대표 신학생이 문제집이 담긴 박스를 들고 기숙사로 오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한숨을 내쉬죠.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각자 자기 것을 들고 방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채점을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저에겐 학생분들의 문제집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 있고 은총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바오로딸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집 평가를 통해서 가장 좋았고 의미 있다고 느낀 부분은 제가 담당한 많은 학생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학생분들의 얼굴은 모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분들의 소중한 신앙체험들은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점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평신도인데도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힘쓰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

아래 모두가 한 형제자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통신성서 평가를 하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당장 할 때는 힘든 점도 있었지만, 다 하고 났을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직자, 수도자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당장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비록 그 끝이 언제 일지는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체험을 함께 나눕니다.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때론 함께 슬퍼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작고 소소한 행복과 평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결국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긴 여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오늘이 잊히겠지만, 이런 작은 만남의 조각들이 모여서 먼 훗날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서로 이 조각들을 꺼내서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신 모든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기쁘게 수도생활 해나가시길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생이 평가자에게

+ 찬미 예수님

그간 안녕하셨지요? 요한 평가자님.

무덥고 긴긴 여름입니다. 저는 아이랑 가족 여행도 다녀오고 집에서 씨름하며 빨리 개학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예언서 공부하는 너무 어려운 데다 저는 ‘역사’ 이런 것에 무지 취약하여 읽고 또 읽어도 머리에 잘 보관이 안 되고... 공부하다 엉엉 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말씀은 어찌 그리 하나같이 아름다운지요. 그들의 고통과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 그 말씀 안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또 5과와 7월의 매일미사 1독서는 진도를 그렇게 맞춘 것처럼 예언서로 함께 가더군요. 집에서 읽고 공부하고, 미사 참례하며 독서를 듣고 강론을 들으니 더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7월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그분의 애뜻한 사랑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 가슴에 담고 6과를 향해 정진해야겠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이번에도 부족한 저의 문제집을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시면 시원한 팔빙수? 냉커피?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한경연(모니카)·1학년

평가자가 학생에게

모니카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 끝날 것 같던 여름이 지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8월 말입니다. 마침 오늘이 8월 27일 모니카 성녀의 축일이네요. 이것을 받아보시는 날엔 이미 지나 있겠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과는 여러모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언자

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상기하며 평소에도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자매님의 문제집을 채점하면서 예언자의 소명은 크고 위대한 것을 완수하는 데 있지 않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작고 소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완수해 나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언 소명의 완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매님! 어느덧 9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하느님 안에서 누리시는 기쁨이 어느 때보다 풍성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 세례자요한 평가자



학생이 평가자에게

두서없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느낌 적기와 나눔들이 어렵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평가자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감사합니다.

조일환(아벨로)·2학년

평가자가 학생에게

아벨로 형제님! 저도 똑같았으니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 아는 게 없어 좀 알고나 믿어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 짜인 교과 과정에 따라 역사와 당대의 문화적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니 그 뜻을 어렵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과정마다 등장하는 느낌과 체험을 적는

문제 그리고 나눴는 부담이 되어 ‘이것만 없으면 성경공부 할 만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아직 다 이해가 안 돼서 적을 거리가 없고, 쓸스럽기도 하고, 우스갯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걱정도 돼서요.

처음에는 빈칸 메우려고 몇 자 적기도 했는데 이를 반복하다 보니 조금은 이력이 생기고 고민도 하는 과정을 겪으며 입문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급과정에 들어서 보니 읽는 재미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문제에 닿으면서 과정마다에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계기는 제가 성경공부를 하는 의미를 찾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 체험을 적는 것이 교육원이나 평가자에게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어내는 것으로,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무엇이든 적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고 부담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무엇을 적을까?” 고민하는 과정이 성경공부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형제님! 지금은 구, 신약 전체를 한 번 훑어보는 입문과정입니다. 앞으로 4년 또는 6년 넘게 남아있습니다. 지식을 전수하거나 자격증 받을 교육도 아니니 급할 것 없습니다. 빈칸으로 남기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세요.

성경공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분이 형제님께 바라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내 주관이나 관념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성경공부 과정마다 따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 여정을 교육원과 동반자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 프란치스코 평가자

학생이 평가자에게

혹독한 더위입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시편과 율기를 공부하며 저의 신앙생활

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왜 성경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같이 더딘 사람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교재를 써 주신 박병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두서없이 쓰는 저의 글을 읽고 평가해 주시는 평가자 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김혜수(카타리나)·4학년

✉ 평가자가 학생에게

+ 동정 마리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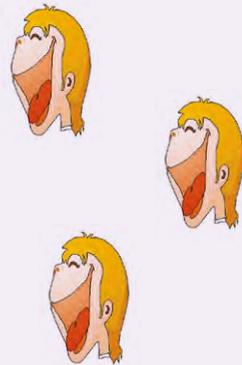
가타리나 자매님!

시편과 율기를 통해서 새로운 감사를 드리시는 자매님. 저도 기쁘고 감사롭습니다. 인생의 깊은 지혜를 깨달으시고 시련과 고통도 하느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삶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깨닫고 이웃과 함께 즐겁게 사시라고 웃음 10계명을 팁으로 보내드립니다. 5과에서 뵙지요.

웃음 10계명

1. 크게 웃어라

크게 웃는 웃음은 최고의 운동법이며
매일 1분 동안 웃으면 8일 더 오래 산다.
크게 웃을수록 더 큰 자신감을 만들어 준다.



2. 억지로라도 웃어라

병은 무서워서 도망간다.

3.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아침에 첫 번째 웃는 웃음이 보약 중의 보약이다.
3대가 건강하게 되며 보약 10첩보다 낫다.

4.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병원과는 영원히 바이 바이(bye, bye)

5. 마음까지 웃어라

얼굴 표정보다 마음 표정이 더 중요하다.

6.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즐거운 일은 즐거운 일을 창조한다.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7. 함께 웃어라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 이상 효과가 좋다.

8. 힘들 때 더 웃어라

진정한 웃음은 힘들 때 웃는 것이다.

9. 한번 웃고 또 웃어라

웃지 않고 하루를 보낸 사람은
그날은 낭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0.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꿈과 웃음은 한집에 산다.

박 고로나 평가자

✉ 담당학생들에게 보내주신 평가자님의 글

+ 찬미 예수님

가을이 깊어가네요. '갈'무리하는 계절인지라. 환골탈태하는 나무와 수확이 끝난 논을 보면서(저는 논과 산,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풍경을 매일 접하는 산골에 살고 있답니다 ^^) 가을이 저에게도 말을 걸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원했던 바람이 어느덧 싸늘해지면서 나무가 더욱 단단히 성장하도록 이끌고, 올 한 해 멋들어지게 입던 낙엽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한 해를 잘 갈무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해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1코린 13,4)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살았는데요.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 나는?" 하는 물음으로 연말을 마무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성경공부도 중반을 지나갔고, 마무리에 더 가까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동반하는 평가자로서 모자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약간의 아쉬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사신 한 해가 어떠셨는지, 특별히 '공부'를 통해 만난 하느님의 말씀이 어떤 감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자신도 매일 듣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겸손하게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기를 청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못 미더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뚜벅뚜벅' 저에게 마련해 주신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만나 뵈지는 못했지만 이 통신성서 공부에 동반했던 경험을 통해 얻은 인연이 무척이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 자신이 게으름이나 슬픔에 빠져있던 순간에 저를 붙들어 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새롭게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주저리주저리 많아져서 부득이하게 이번 차례에는 이렇게 적어서 첨부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다는 인사는 조금 먼저부터 해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괜스레 혼자 감성에 젖어서 이렇게 인사를 선부르게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해도 그냥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전례력으로로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통용되는 달력보다는 한 달 이른 갈무리를 하게 되지만, 그것이 결코 불이익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한 달 이르게 한 해의 마무리를 한다는 마음으로 써 올리는 것이니 너그러이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한 해 주님의 은총 안에 평화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샬롬~!

송 사도요한 평가자

너와 내가 만나는 곳, 연 수 회



〈구약입문 2학기 연수회〉

2016년 1월 16일, 구약입문 2학기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송재준 마르코 신부님(대구 가톨릭대)께서 예언서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구약입문을 잘 정리해 주셔서 처음 연수회를 접한 입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입문 2학기 연수회〉

2016년 1월 9일, 신약입문 2학기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허규 베네딕도 신부님(서울 가톨릭대)은 복음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4복음서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시는 강의를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성바로 신학영성 수료연수회〉

2016년 2월 20일, '바로로 시간에 드러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일치'라는 주제로 성바로 신학영성 수료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최광희 마태오 신부님(서울대교구 성서사도직)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니 마치 사순시기에 광야에서 단비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해 주신 분도 계셨고 덕분에 바로로 사도의 희생과 노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연수회 참석을 위해서 멀리 캐나다와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학생도 계셨습니다. 모두들 8년간의 통신성서 공부를 마치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



〈구약중급 연수회〉

2016년 7월 9일에 있었던 구약중급 연수회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박병규 신부님께서 신부님의 저서인 「시서와 지혜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신부님의 열정적이고 자유로운 시각의 강의 덕분에 신앙의 근원을 잡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수회를 위해 지방에서 오신 분들, 빨리 오고 싶어 이른 새벽 6시 30분부터 오신 분, 저 멀리 해외에서 연수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 그분들의 열의에 감동 받은 하루였습니다. 감동~ 감동~



〈신약중급 연수회〉

2016년 5월 28일, 신약중급 연수회에서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이진수 신부님께서 '불확실한 아버지와 문제가 되는 엄마 이야기'로서 마태오와 마르코복음이라는 신선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 준 뜻깊은 연수회였습니다. ^^~



<구약입문 1학기 연수회>

2016년 7월 16~17일, 마리스타교육관에서 구약입문 1학기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머니와 딸, 그리고 세 자매분이 함께 오시기도 했습니다. 구약입문 학생들을 위해 안식년 중에도 멀리 로마에서 와주신 염철호 신부님(부산 가톨릭대학교)의 강의를 입문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신앙과 말씀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수회에는 통신성서를 통해 공부만 했을 뿐 20년 동안 냉담하며 성사생활을 하지 않고 지내셨다는 자매님이 신부님의 강의를 듣고 고해성사를 하게 된 기적과 같은 일도 있었고, 어떤 형제님은 성경을 몇 번씩 읽어도 풀리지 않던 의문이 신부님의 강의로 모두 풀렸다면 정말 행복해하기도 하셨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연수회에 참석하신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짹~짹~ 짹~ 박수!



〈신약입문 1학기 연수회〉

2016년 7월 30일에 있었던 신약입문 1학기 연수회는 광주 가톨릭대학교 한재호 신부님께서 '사도행전과 바오로 서간'을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핵심을 콕콕 짚어주는 신부님의 강의는 신약입문 학생들에게 1학기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고, 쉬는 시간에 신부님의 저서인 요한복음 묵상서 「다 이루어졌다」 사인회도 가져 학생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여름 연수회에 함께해 준 학생수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바로 신학영성 연수회〉

2016년 10월 8일, 성바로 신학영성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김태훈 신부님(성바로수도회)께서 하느님 사랑과 사도 바오로에 관한 주제로 멋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파견 미사 때는 성바로수도회 수련자 자매들의 특송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 너무 아쉽다며 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영성 2학년 학생분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학생들은 말한다.

나에게 예수님은 _____ 이다!



시작이신 말씀
사랑, 생명
튼튼한 백
돌아갈 고향, 도착지
지팡이

언제나 함께하는 친구
항상 보듬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고통(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게 된다)
보물창고

전당포(저는 당신의 포로입니다)
신비롭게 살아계신 분
내 삶의 모든 것
진짜 아빠, 참 papa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확실하고 문제없는 아버지
해결자, 위로해 주시는 분
길 잃은 나그네의 나침반, 등대
새로움의 시작(부활)
종점

못다 한 교육원 이야기

2016년 장학생 현황

올해 교도소에 계시는 어떤 분의 편지글이 생각나서 함께 나눕니다.

“좋은 대학, 대기업, 유명학원 강사로 지낼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냉담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다가 사업실패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지고 죽어있는 이 시간, 하느님 안에서 참의미를 되찾기 위해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걸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배려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연수회 파견미사 봉헌금과 전국 바오로딸에서 모금한 성금으로 전국 교도소에 계신 형제자매님이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공부를 통해 삶의 궁극적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하느님의 손길 안에 두며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에 저희들은 다시금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분	교도소 교도관	재소자 장학생	일반 장학생
인원	23	38	5

새롭게 시작한 <성경읽기> 특강

2016년 3월부터 통신성서 중급과정 학생들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경 읽는 재미」의 역자인 박병규 신부님의 특강은 시작되었지요. 이번 특강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성경 읽기를 돕고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처음 마련된 것입니다. 강사 신부님께서서는 <초기상황-문제제기-전환행위-문제해결-종결상황>이라는 흐름 안에 몇 개의 성경 본문을 적용하면서 복음의 깊이를 설명해 주셨고,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읽어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 하반기 9월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년에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2016년 성서사도직세미나

교육원 수녀들이 2016년 8월 22~24일, 대전 정하상교육관에서 열린 성서사도직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원 가톨릭대학교 나호준 신부님께서 ‘정경으로서의 성경-나와 너,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성경은?” 많은 신학자들이 주로 비평을 위한 성경해석을 해왔으나 성경의 어원은 ‘canon’ 곧 ‘신앙의 척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우리 신앙의 터전이요 발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곧 신앙이라는 명백한 틀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와 벌’이라는 관점에서 성경말씀을 읽어왔다면 이제는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말씀을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리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016년 교육원 교재 작업 상황

1) 구약성경 입문과정 상권 (1학년 1학기) 교재

전주교구 김정훈 스테파노 신부님(효자4동성당)께서 구약입문 1학기 교재를 신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새롭게 번역해 주셨습니다. 2017년부터는 개정되어 나오는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2) 구약성경 중급과정 모세오경 (3학년 1학기) 교재

윤성희 선생님이 집필하신 모세오경 (3학년 1학기) 교재는 2017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3) 신약성경 중급과정 공관복음 (5학년 1학기) 교재

대구대교구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님께서 5학년 1학기 공관복음(마태오, 마르코, 루카) 교재를 집필해 주셨습니다. 공관복음 교재는 2017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2016년 교육원 이러닝 촬영 상황

• 구약성경 입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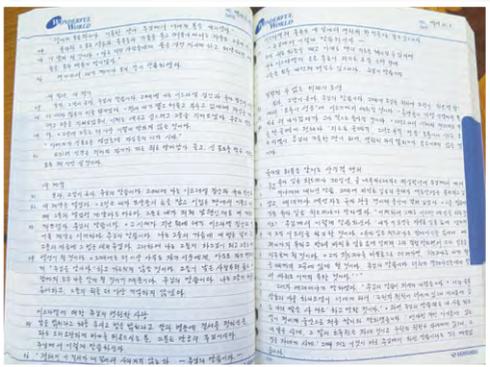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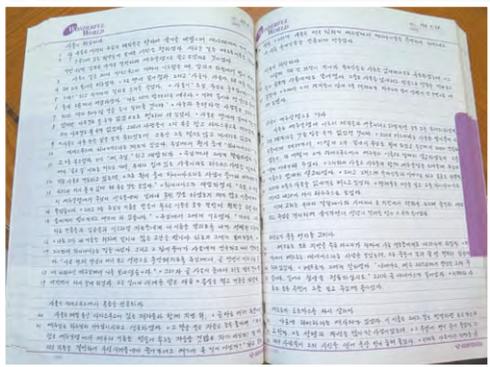
2011년부터 강의해주셨던 김계홍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광주대교구)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부터는 박형순 바오로 신부님(인천교구)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알콩달콩 이야기

♥ 학생 중 어떤 형제님께서 1년 반이 걸려 완성한 5권의 성경필사노트를 교육원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정성 들여 쓴 성경필사노트라 그런지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성스럽고 반듯하게 쓰인 글씨를 보며 형제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더구나 직접 제본까지 해주시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보내달라며 택배비까지 주셨네요^^

성경필사노트를 받으시는 분이 이 정성을 마음에 담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성경필사를 해서 건넨다면 세상은 참으로 행복이 건너건너 널리 퍼지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형제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교육원에 도움을 주신 은인 작품

2015년부터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의 소개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талан트를 기꺼이 기부해주신 웹 디자이너 김상훈 바오로 형제님(아현동성당)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포스터를 비롯해 팝업창, 배너, 교재 문제집 표지 디자인(2017년 구약입문 교재부터)까지 일일이 애써 봐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가톨릭·평화신문



아름의 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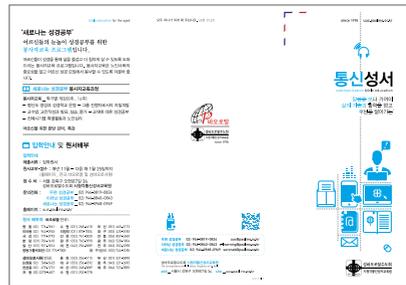
매일미사



전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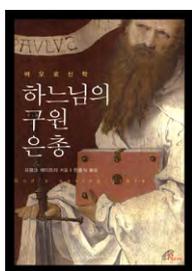


포스터



리플렛

공부에 도움이 될 매체를 소개합니다



하느님의 구원 은총(바오로 신학)

프랭크 메이트라 | 한충식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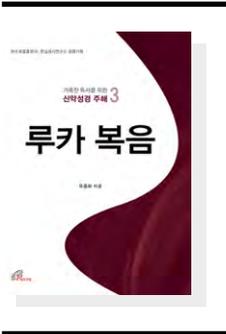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 체험을 토대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건설하면서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저자 프랭크 메이트라는 그 편지들 안에서 바오로가 살고 전한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윤리, 종말론, 신론을 살펴본다. 단지 이론이 아니라 삶의 여러 정황이 빛어낸 편지들이라 바오로의 목소리가 더욱 생생하다. 바오로 신학 전반을 다루고 있는 가톨릭 신학자들의 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값진 작품이다. 바오로 서간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는 좋은 안내서다.

바오로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다른 민족에게나 똑같이 모든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선포한다. 바오로에게 이 구원 은총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이 신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전시켰지만 하느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그의 복음은 전통적으로 부르심과 회심이라 불리는 그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하느님의 구원 은총 체험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바오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개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일깨우고 그 복음대로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 서간을 썼다. 바오로가 자신의 부르심을 언급한 것은 그의 복음과 사도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이 연구서를 저술한 목적은 신학에서 바오로 문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서학자와 신학자들에게 바오로 문서의 신학적 주요 주제인 그리스도론, 구원론, 윤리, 교회론, 종말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인 신비, 곧 하느님에 대한 연구인 '신론'에 대한 요약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루카 복음 (거룩한 독서를 위한 신약성경 주해 3)

유충희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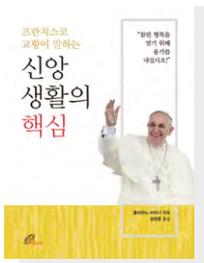
이 책은 루카 복음 입문과 루카 복음 주해로 이루어진다. 입문 부분에서는 루카 복음의 전반적 특징을 설명하여 본문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게 한다. 주해 부분에서는 성경 본문 전체를 제시하고 각 장과 절마다 각주를 붙여 거룩한 독서를 하는 신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설명해 놓았다. 마지막에 참고 문헌과 성경 색인을 실었다. 「루카 복음」 출간으로 신약성경 주해 4복음서가 완간되었다. 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로는 지난 2월 「시편 1-41편」이 출간되었고, 이어 「신명기」, 「이사야서 1-39장」, 「시편 42-89편」이 출간되었으며, 이사야서 둘째 권과 에제키엘서가 앞으로 나올 예정이다.



걱정 말아요 365일

마우리치오 미릴리 | 박미애 | 바오로딸

하루에 한 가지씩 두려움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하고, 모든 인간이 가진 일상의 다양한 두려움을 하느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책을 통해 날마다 희망의 작은 불빛을 찾고 격려를 받으며 삶에서 구체적인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현대인들이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굳세게 그 길을 가도록 힘을 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핵심

프란치스코 교황 | 줄리아노 비지니 | 김정훈 | 바오로딸

프란치스코 교황의 설교나 강론 가운데 신앙생활에 핵심이 되는 내용을 '건기'라는 개념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성령칠은과 칠성사를 다루고 있어 신자 재교육 용으로 유익하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마더 데레사 | 지은정 | 바오로딸

신앙과 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11가지 주제와 인터뷰 대화를 모아놓은 말씀집을 펴냈다. 기도·사랑·내어줌·거룩해짐·일과 섬김·예수님·가난과 가난한 이들·용서·어린이와 가족·고통과 죽음·사랑의 선교사에 대해 마더 데레사의 생활 체험에 바탕을 둔 예화와 함께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을 모은 것이다. 또한 자신이 세운 수도회와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와 함께하는 세계적 활동과 자신의 신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눈 인터뷰 내용과 연보도 실려있다.



이사야서 1-39장 (거룩한 독서를 위한 구약성경 주해 29-1)

안소근 | 바오로딸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에서 예언서들 가운데 첫째로 나오는 이사야서는 분량도 방대하고 신학적으로도 성경의 다른 책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신약성경의 여러 중요한 부분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관계를 다루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마서 강해 하느님의 의로움에 이르는 길

이영헌 | 바오로딸

이 책은 로마서 강의를 하듯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다. 필자는 특별히 심도 있게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가능한 한 각주를 많이 달았고, 각주에서도 참고문헌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보충 설명도 비교적 자세하게 부연했다. 따라서 이 주해서를 읽고 공부할 때 각주도 유념하여 정독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발행 : 2016년 11월 30일
펴낸데 :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01166 서울 강북구 오현로7길 34
등록 제7-123호 1994. 3. 30
전화 : 02)944-0819~0824 FAX 987-5275
이메일 : uus@pauline.or.kr
홈페이지 : <http://uus.pauline.or.kr>
카페 : <http://cafe.daum.net/junim510>

이 책은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회지이며 비매품입니다.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통신성서

2017년도

학생모집

11.1 ²⁰¹⁷ → 1.25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 17,21)

성경 말씀을...



매월 교재학습을 통한 **'우편 성경공부'**와 PC, 모바일을 통한 **'이러닝 성경공부'**로 어디서나 편하게...

입학안내

- 제출서류 : 입학원서
- 원서접수 : 11월 - 2017년 1월 25일까지
- 원서배부 :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서원 및 교육원 홈페이지
- 접수처 : 서울 강북구 오향로 7길 34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 등록혜택 : 우편·이러닝 성경공부
가족(부부, 자매, 형제) 2인 이상
신청 시 등록금 20% 할인혜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류 첨부)
- 홈페이지 : uus.pauline.or.kr(인터넷 접수)

교육과정

- 입문과정 _ 신·구약(2년)
체계적인 성경공부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바탕을 둔 기초과정
- 중급과정 _ 신·구약(4년)
보다 깊이 있게 성경공부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심화과정
- 성바오로 신학영성과정 _ (2년)
성바오로의 영성을 기도하도록 이끌어주는 과정

성경공부안내

- 우편 성경공부 _ 우편을 통한 문답식 학습
교재학습 및 문제집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
- 이러닝 성경공부 _ 온라인을 통한 학습
동영상 강의와 강의자료를 통한 온라인 교육
- ▶ 우편, 이러닝 중 선택
- 새로나는 성경공부 _ 봉사자교육
어르신들의 눈높이 성경공부를 위한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입학문의

우편 성경공부 | 02) 944-0819~0824
uus@pauline.or.kr

이러닝 성경공부 | 02) 944-0840~0843
e-learning@pauline.or.kr

새로나는 성경공부 | 02) 944-0968~0969
seronab@pauline.or.kr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